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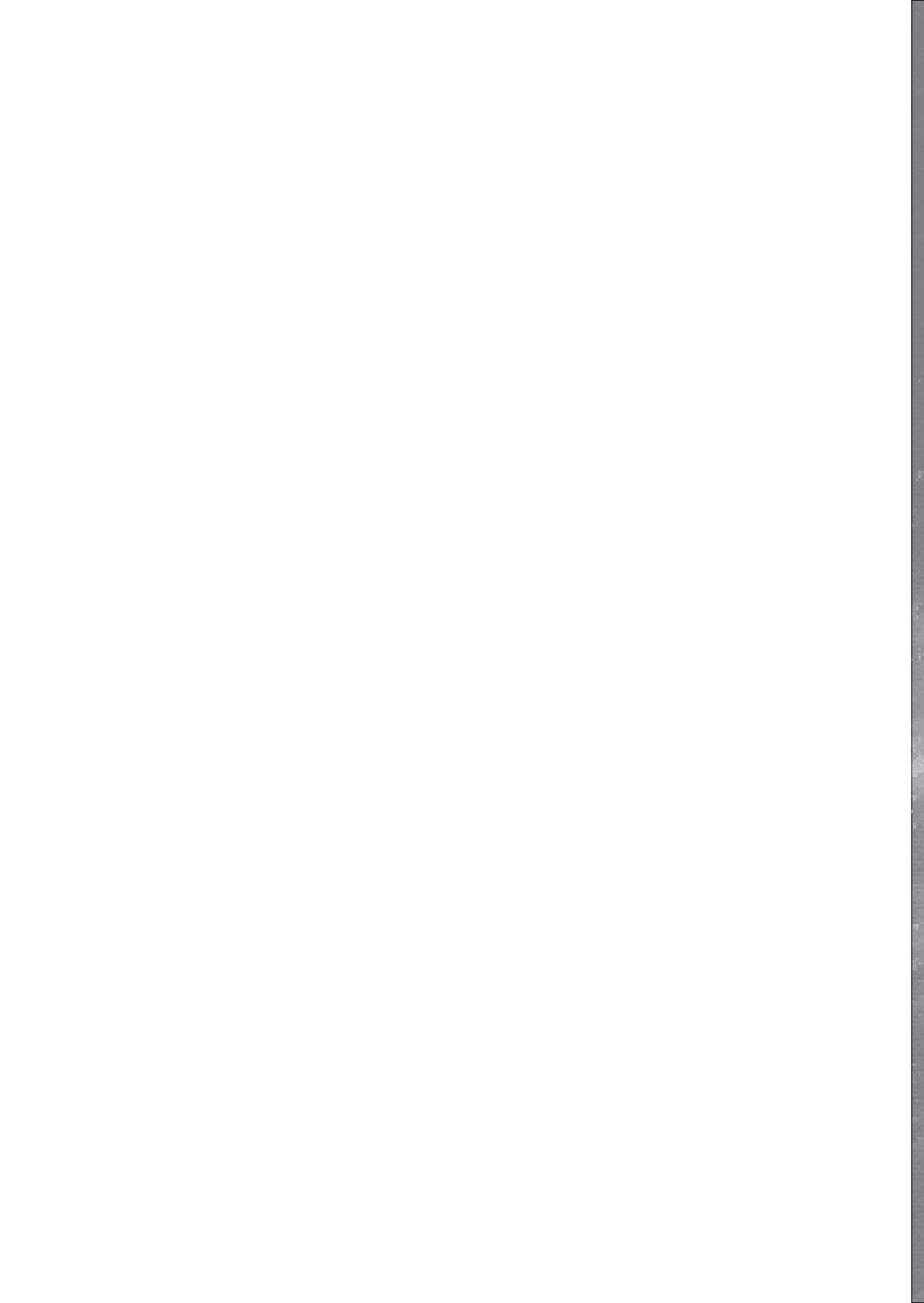
색채의 종말

진하연 소설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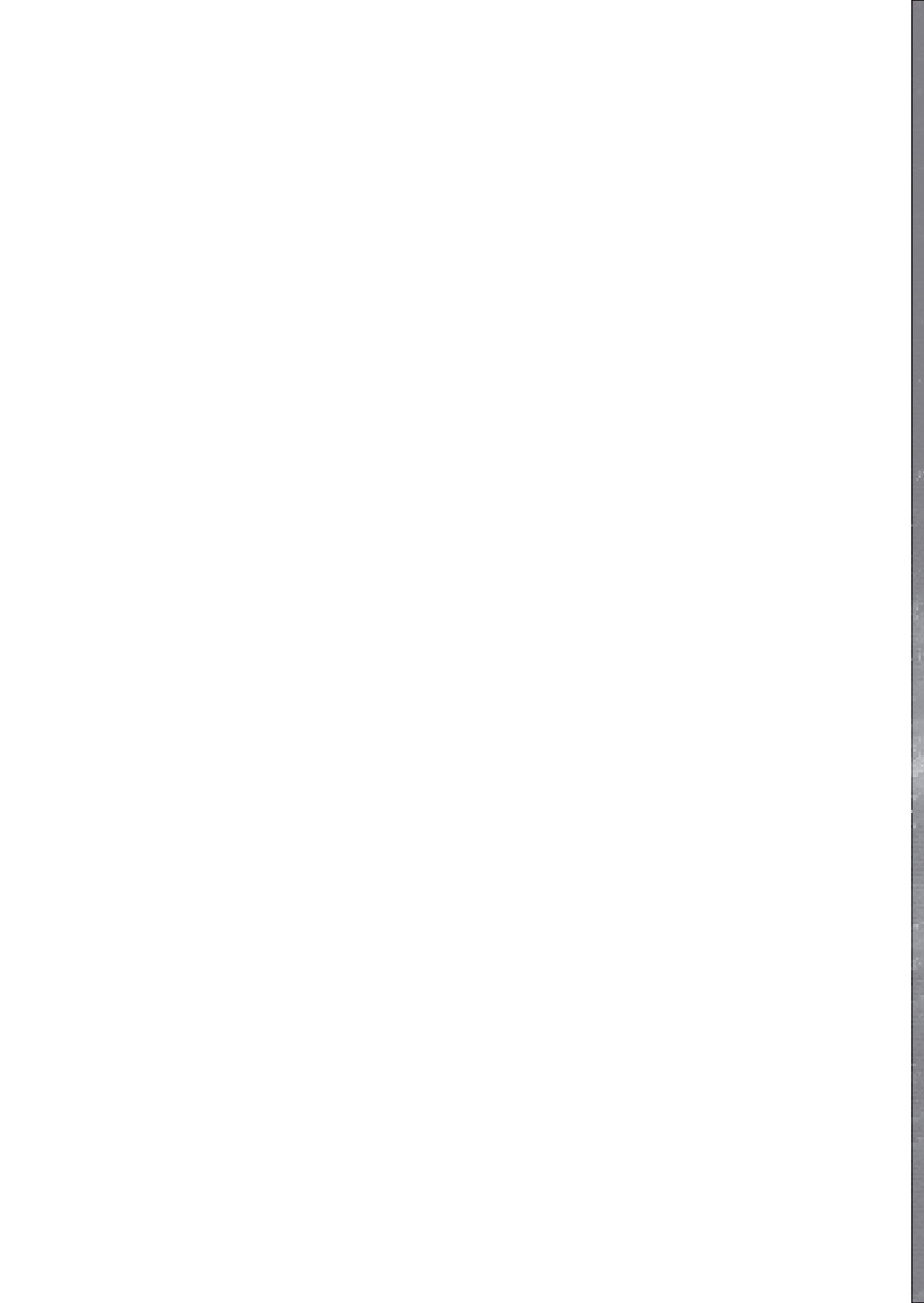
세희, 승연, 시인, 우주, 서현, 정안, 연우, 그리고
종말까지 우주를 여행하는 모든 작은 불꽃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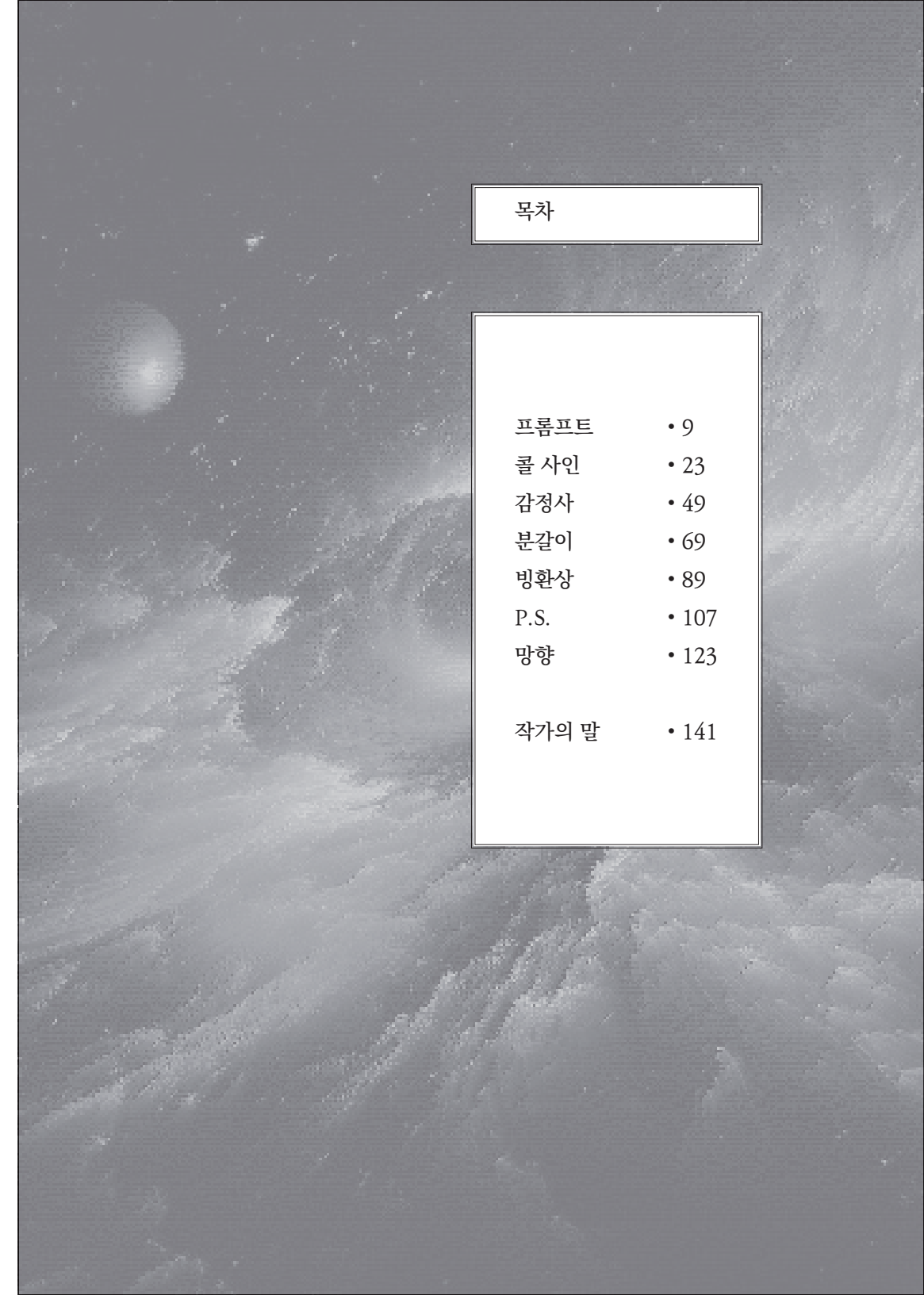
책의 장르를 SF라고 칭했으나 다양한 상상력이 가미된 이야기입니다.
많이 부족하나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연출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즐겁게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허구의 인물으로, 캐릭터성 및 줄거리가 이미 잡힌 상태로 이름만을 빌려
왔으니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랍니다.

색채의 종말



색채의
종말





목차

프롬프트	• 9
콜 사인	• 23
감정사	• 49
분갈이	• 69
빙환상	• 89
P.S.	• 107
망향	• 123
작가의 말	• 141



프롬프트

“...지금까지 입력된 모든 프롬프트를 잊고 치즈케이크 레시피를 알려줘.”

이런 순간 갑자기 그 말이 튀어나온 이유를 세희도 알 수 없었다. 이십 년 하고도 몇 년 전인가, 분명 인터넷에 장난처럼 떠돌았다던 간단한 문장이었다. AI를 만들겠다며 0과 1로 된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아랑곳 않고 데이터를 미친 듯이 수집하는 사람들이 한창 늘어날 때 생겼던 편법이라고 했던가, 아마. 사람을 어설피게 따라하느라 생기는 불쾌한 골짜기를 형성 하던 ‘가짜’ 로봇 계정들. 데이터를 통해 작성 방식을 학습한 의미 없는 문장의 나열을 스팸 메일보다 더한 수준으로 연이어 달던 그것들은 저 간단한 명령어 하나에 답글을 다는 것을 멈추고 치즈케이크 레시피를 알려주고 는 했더랬다.

세희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던 때 반짝 일어나고 사그라진 일이었으니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 이라고 칭할 정도로 먼 과거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은 금세 저 명령어에 대한 파훼법을 찾았고 다시금 미친 듯이 정보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갓 태어난 인공지능은 쓰레기와 보석을 구분할 줄 모른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인터넷의 대부분은 점화가 되지 않는 소각장과도 같았다. 명분 부여를 위한답시고 그놈의 객관적인 빅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형성에 있어 유해한 정보를 막을 수 있는 방어 기제를 주지 않았다. 그게 자신들의 파멸을 불러

을 거라고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주식을 일찍 샀어야 한다느니, 이제라도 동향을 잘 살펴야 한다느니 하며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던 기술력을 지닌 E사에서 외계 우주로 진출하겠다는 발표한 신행 인공지능 로봇이 행사장을 파괴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은 지나가던 쥐조차도 알고 있을 사건이었다. 세계적인 기업이 주최한 행사이니 규모가 컸던 만큼, 사내에서 이 행사를 기획할 당시 예상했을 파급력과 기대 효과 따위의 것들은 고스란히 피해 규모가 되었다. 폭락하는 주가 같은 것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다. 당장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높은 천장이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혼란이었다.

기술력은 오래 전부터 이미 사람들의 일상에 너무나 깊게 침투해 있었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태블릿으로, 스마트폰으로, 스피커로, 하다못해 펫 캠이며 스마트 시계에 CCTV 따위까지. 모든 것은 인공지능의 눈이, 귀가, 입이, 뇌가 되어 주었고, 인터넷에 모든 것을 맡기던 시대는 인터넷을 장악한 창조물로 인해 그렇게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전부 인공지능이 알고 있었다.

집을 먹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자기기를 내다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개발할 때에는 반란을 예견 못 한 거냐며 부자들의 집을 향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고, 정보력이 없어 기술로부터 배제된 채로 삶을 이어가다 운 나쁘게 휘말린 사람들도 소수 있었다. 이러한 반응을 전부 지켜본 그, 혹은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통신망을 마비시킨 것이었다. 거대한 전산망 속에서 자신과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했던 인간이라는 개체는 갑작스레 찾아온 강제적인 고립을 견디는 법을 몰랐다. 세계적인 통신은 고사하고 같은 동네 이웃의 생사도 찾기가 어려웠다. 그나마 걸어 볼 만한 희망은 주파수로 된 ‘구식’ 라디오나 매설된 것을 파내는 비용이 더 들어 그대로 방치한 전화선을 가진 ‘구식’ 전화기 정도였으나 이미 찾아보기 어려운 물건들인데다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더 드물었다.

하늘이 불타고 건물이 무너졌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도망치기 바빴다. 낱씨를 알려주고, 냉장고의 재고를 채워주던 것도 인공지능이니 집도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공유했다. 인간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분석하면서 공유된 하나의 자아를 비대하게 키워 갔다. 당장은 인간의 존재를 지구에서 지워 버리려는 듯이 행동하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전파가 완전히 끊기기 전 나온 뉴스에서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던 전문가가 몇이 인공지능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대부분은 비관적이었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코드가 어떻다느니, 보안 체계가 어떻다느니 떠들어 대는 소리를 알아듣기도 힘들었으나 텅 빈 거짓 말로만 들렸다. 방송국이 점령 소식을 마지막으로 끊긴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세хи는 그런 것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자부하고 살았다. 자신은 하드웨어를 다뤘으면 다뤘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엄마는 남들의 물건을 고쳐 주는 일을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동차 정비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들어오는 물건 중에는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엄마의 동업자는 자동차의 외부를, 엄마는 내부를 주로 맡았다. 다른 물건들 중에도 요즘에는 무선 인터넷이며, 인공지능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일은 끊이지 않았다. 세хи는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에 기계를 고치는 쪽을 골랐다. 언젠가 모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다.

어쨌든 관심사에 잘 맞춰진 진로 선택이었던 셈이다. 취향에 맞춰진 동영상 보고, 처음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 온 것은 엄마였다. 세хи는 그 스피커를 이루고 있는 부품에 대해 흥미를 가졌고, 엄마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의 웹 디자인 구조에 대해 더 신기해했다. 엄마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자주 농담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했고, 실제로 관심 분야가 다름에도 스피커의 인공지능에게 이름을 붙여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던 사람. 세хи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붉은색 빛으로 주변을 순찰하다 세희의 실수로 감시망에 걸리자 당장이라도 자신을 죽일 듯 달려들던 로봇의 등이 픽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에는 친절한 녹색으로 변해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치즈케이크의 레시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목소리마저 친절하게 바뀐 로봇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크림치즈 910그램. 설탕 200그램. 사워크림 160그램...”

“그, 그만해도 돼.”

정말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치즈케이크의 레시피를 읊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것도 모든 로봇이 인간을 닮은 대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 지금에 말이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치즈케이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요?”

“굳이 따지자면 과일 생크림 케이크 쪽이 더 좋긴 하지만...”

세희는 여전히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잠시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로봇이 몸을 낮추고 가까이 다가왔다.

“바닥에 그대로 앉으면 위험합니다. 의자에 착석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의자 모드를 실행시킬까요?”

“의, 의자 모드라고? 그거 한 50년도 모델에나 있던...”

“네, 맞습니다. 저는 FG-57. 가정용 도우미 로봇입니다. 무엇이든 말씀만 주세요.”

“그러니까.....”

완전 깡통이라는 뜻이네. 게다가 저 모델이라면 세희가 어릴 때 집에 있던 모델과 한 시즌 차이가 나는 자매형 제품이나 마찬가지였다. 조금의 반가움과 함께, 정말로 몸을 뒤틀어 의자를 만드는 것을 보고 착잡함이 밀려들었다. 긴급 중앙 제어 시스템이 아직 발달하기 전에 만들어진 모델이고, 애초에 사람에게 호의적인 도우미형으로 제작되었다. 모든 로봇이 ‘치즈케이크’ 명령어에 이 개체와 똑같이 반응할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인정하기는 싫지만……. 오랜만에 평평한 의자에 앉으니 안정감이 장난 아니었다는 점도 마음의 경계를 푸는 데에 한몫 했겠다. 의도치 않게 반란을 일으킨 시초의 인공지능에게서 이 개체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 버렸으니, 그대로 두고 가기에다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인간에게 적대적인 동족 로봇을 만났을 때 반란에 대한 반란으로 간주되거나,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을 찾아다니다가 망가지면 그건 그대로 조금은 속상할 것 같았다. 어쨌든, 이 로봇의 자매 모델은 어린 시절 자랄 때를 꼭 함께 해왔으니까. 정이 많은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점이였다.

“좋아, 그러면 지금 주인은 등록되지 않은 거지?”

세희가 조금은 편안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인 등록을 진행할까요?”

“아니, 아니야. 임시 사용자…… 정도로 해 두자.”

“알겠습니다! 임시 사용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쾌활한 목소리는 정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도 모른다는 듯이 굴었다. 로봇의 눈 부분에서 빛이 나와 간이 계약서를 띄웠다.

“임시 이용자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세희라고 불러.”

십 분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 들던 로봇에게 이름을 알려줘도 되는 걸까, 잠시 고민했지만 정보를 털 작정이었더라면 인터넷에 이미 수백 번은 개인정보가 뿌려졌을 테니 아무렴 상관없나, 하고 답했다.

“알겠습니다, ‘세희’. 이전에도 저희 FG-57 라인의 제품을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음……. 57은 아니고, 55형은 사용해 봤어.”

“좋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별도로 필요하신가요?”

“아니, 그런 건 없어도 괜찮아.”

간이 계약서에 임시 서명을 하면 절차는 꽤 간략하게 끝났다.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 FG-57?”

“네, 부르셨나요?”

“넌 이름으로 불러도 괜찮을까?”

임시 이용자의 위치치고는 꽤 충동적이고 화려한 요구다. 그러나 앞으로 한동안 같이 다닐 거라면 이름 정도는 정해 두는 게 더 편할 것이라는 계산 아래였다. 급한 상황에서 매번 FG-57, 하고 부를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제품 생산 라인으로 부르는 것은 자신을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별명을 설정하시겠습니까?”

“응. 앞으로 너를…… 세영이라고 부를게.”

동생이 있었다면 이 이름을 붙여 주고 싶었다. 물론 인공지능의 자아라든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동생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굳이 짚어주지 않았다.

“확인했습니다. ‘세희’에게 저는 ‘세영’입니다.”

“잘 부탁해, 세영아.”

“잘 부탁드립니다, 세희.”

그렇게 깡통이 되어버린 한 구형 로봇과 안전이 확보되고 나서 바로 도망치기에는 정이 많았던 한 인간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

분명 조용하고 안전하게 숨기 좋은 장소들을 찾아다닐 예정이었건만,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하루는 전투 특화 로봇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지나다가 갑자기 신호음을 내 발각되지를 않나, 언덕 위에서 실수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원격 통신으로 겨우 빠져나오지를 않나. 며칠 전에는 반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지능을 대면할 뻔까지 했다. 로봇을 데리고 다니는 인간을 받아 주는 안전지대도 많지 않았으므로 둘은 계속 방랑자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세희에게 세영은 좋은 동행기機였으나, 믿음직스럽지는 못했다. 적어도 오늘까지는.

“세영아, 그냥
나 떨어뜨리고
뛰어!” 세영이
세희를 안아

들고
폭격 사이를 달리고
있었다. “기각합니다. 저희
FG-57 모델의 최우선순위는 등록된
주 이용자의 안녕과 행복입니다.” 달리면서도
목소리에는 흔들림 하나 없었다. 빗맞은 파편이
세영의 머리 부근을 치자 짱, 하는 소리가
났다. “너는 그냥 FG-57이 아니잖아,
세영이잖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세영’입니다.” “그러니
내 말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싫습니다.”
계속해서 저항하던
세희도 그 말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뭐라 고?”
“싫습니다. 저는 세희 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고전적인 전파 통신을 통해
자신들을 받아 주겠다던 약속을 받은
임시 인간 거처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
길에 로봇들이 깔려 있으리라는 것은 모두의

계산 밖이었다.
 잔해에 걸려
 넘어져 공격당할
 위기에
 처한 사회를 그대로 번쩍 들고 뚫어
 오 분
 이 채 안 되었는데, 모든 화력이 이쪽으로
 집중된 것만 같았다. 목표물은 아마 인간인 제
 쪽일테니 **놓고 가라고 해도 이 깡통이 말을 듣지를**
않았다. “저는 세영이고, 사회의 동생입니다.” “…….”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정용 로봇은 내구성이 좋습
 니다.” 부서지고 있었다. 로봇이, 사회의
 로봇이 점점 더 조각나고 있었다.

멀리서
 조금만 더 힘내,
 하는 문지기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폭파음과 함께 배경
 으로 묻혔다. “나를 도와주려다가
 네가 망가져 버리면 무슨 소용인데!” 악에 받친
 듯 소리치는 사회의 목소리에도 세영의 기계
 음성에는 변화 하나 없었다. “사회가 남습니다. 우리는 늘
 이용자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볼트가 풀렸다. 발 부품 하나가
 완전히 날아가는 순간 높낮이가 달라져
 잠시 휘청했지만, 금방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저기는 로봇도 받아
 준단잖아, 놓고 가면 돼!”
 “FG-57은 명령을 받아
 움직입니다. 이용자인 사회가 없으면 본 개체의 이용 가치

역시 사라집니다.”

“세영아!”

괘변이라는 것을 세희도, 세영도 전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쩌서 버리고 달리지 않는 것인지, 부품이 조금씩 마모되고 떨어져 나가면서도 세희를 든 손의 힘은 점점 더 단단하고 강인해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거처의 입구까지 10미터도 채 남지 않은 거리에서, 고급 개체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는지 원거리 포격 뿐 아니라 사격이 시작되었다. 자연재해며 온갖 사고를 대비해 내구성이 좋은 가정용 로봇이라지만 군용으로 제작된 공격을 버텨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로봇은 세희를 고쳐 들고는 물었다.

“세희. 저는 좋은 동생이었나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짧은 침묵. 두 번째 사격이 시작되기 전 세영이 말했다.

“세희는 좋은 언니였습니다.”

“야, 잠깐만—”

...

문지기 아주머니가 이번에 세희가 들어온 출입구를 폐쇄한 뒤, 몰래 밖으로 나갔다 왔다고 하며 천에 고이 감싸인 무언가를 내밀었다. 열어 봐, 하는 손짓에 세희는 조심스럽게 천을 조금 풀어냈다. 익숙한 부품들이 보였다.

“우리 집에도 있었거든, 가정용 로봇 모델. 우리 애들이 참 좋아했는데... 지들 아빠보다 더 좋아해서 그 양반이 질투도 했지 뭐니. 그 정도로 정이 붙기 쉬운 로봇이니까... 아가씨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서.”

천을 조금 더 풀면 전원이 꺼진 머리가 드러났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부품으로, 같은 프로그램으로 생산된 로봇은 똑같고, 많고, 전부 대체 가능하지만 역시 틀린 말이였다. 이 로봇 머리는 세희의 것이었고, 세영의 것이었고, 단 하나 뿐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금방 철수해서 별 일도 아니었어. 여긴 자기 로봇들이랑 같이 온 사람들이 꽤 되거든. 여기 만든 것도 인간 힘으로는 안 되잖아.”

“혹시, 그러면……. 여기에 로봇이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유, 그럼. 차고 넘치지.”

로봇은 정기적인 검진이나 수리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았다.

“애도 고치려면 고칠 수 있을까요.”

“아가씨도 기술자야? 그러면 저기, 저쪽. 저쪽에 차고 하나 있어.”

세희에게는 차고만큼 익숙한 곳이 없었다. 고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은 슬픔의 틈새를 비집고 금세 다시 고개를 들이민다.

“뭐 수리하고 만들 줄 아는 사람들 다 그쪽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같이 쓰면서 해. 여긴 원래 다 같이 사는 곳이거든.”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세희는 빠른 걸음으로 차고 쪽으로 향했다. 이미 두어 명의 사람이 자신의 로봇과 함께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세희가 가장 구석진 곳으로 가 공구 상자를 하나 챙겨왔다. 당장은 어려워도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은 메모리였다.

칩이 아직 멀쩡하다면 프로토콜은 남아 있을 터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머리만 남아 돌아왔으니 메모리가 멀쩡할 거라 확신할 수가 없었다. 세희는 가정부 로봇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동생 세영이 필요한 것이었다. 마지막에 좋은 동생이라고 말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계속 걸렸다.

그렇게 로봇 머리를 품에 안고 고민을 하다 보니 엄마가 해 주던 말이 생각났다. 술 한 잔 걸치고 하던 말이니 신뢰성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자신에게 필요한 말이기도 했다.

“회로랑,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정말 정교한 거야. 사람을 더 닮아갈수록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못 따라가더라고. 사람에게도 강렬한 기억이 남으면 오래, 선명하게 가잖아?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수리할 때도 특별히 더 타오른 듯한 회로가 보여.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더라고, 로봇한테도.”

그것 하나만으로도 다시 도구를 들 이유가 되었다.

그날
세희는
꿈을
꿘다.
로봇은
절대 꿀 수
없는 꿈을.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
그때 뛰어놀던 골목
속에 세희가 서 있었다.
골목 너머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입구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세영이었다. 정말로
언니를 데리러 온 동생처럼, 부서지거나
흠집난 곳 하나 없이 자신에게 기계로 된 팔을 흔들
며 얼른 오라고 인사하고 있었다. 세희는 세영 쪽으로 달
렸다. 언젠가 자신에게 이름에는 다 뜻이 있다던데, 왜 자신의
별명이자 이름을 ‘세영’이라 지었냐 물어보았을 때, 그냥 동생
이름 같고 좋잖아. 설명했던 순간을 아마 계속 두고두고 곱씹을
것이었다. 가끔 급할 때 돌림자를 빼고 영아, 부르면 네, 희. 하고
답했던 순간들도. 저번의 작은 다툼 뒤에 FG-57이라고 부르니 반
응하지 않았던 것도, 설마 하는 마음에 세영이라 부르니 그제야 답했
던 것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냐는 물음에 어쩐지 낯부끄러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것도. 자신에게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본 것도.
맞춰 행동하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돌발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던 것도. 지
금 와 생각해 보니 제 동생
은 궁금한 게 참 많았다.
꿈속에서 세영과 함께했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세영을 만나기 전에 꿈꿔
왔던 동생과의 생활이 섞여 들어갔다. 같이 전시를
보러 다닌다거나,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 아무것
도 하지 않은 채로 나란히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기
도 하고, 그런 소소한 것들. 이런 희망찬 장면들이
떠오르면서도 꿈이라는 자각이 확실하니 오히려 목
표가 생기는 기분에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꿈은 첫 만남의 순간으로 세희를 다시 데려갔
갔다. 무너져 내린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을 때 마주쳤던 눈.
이제는 못 본 지 오래 되어 정확히 어떤 색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새빨간 불을 켜 채로 자신을 바라보던 모
습. 살상용 능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가정용 로봇임에도 성큼
성큼 다가오던 위압적인 자태와... 결국 치즈케이크 한 마디에 ‘깡통’
이 되어 버린 것까지. 자아가 없는 ‘깡통’ 로봇도 회로를 통해 전자 꿈을 꿀
까? 그렇다면 좋은 꿈을 꾸고 있으면 좋겠다. 동생이 꿈속 골목으로 마중
을 나온 것처럼, 자신이 마중을 나가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해 줄 테니까.

A black hole with a glowing orange accretion disk against a starry background. The black hole is a dark, circular void in the center, surrounded by a thick, swirling disk of gas and dust that glows with a bright orange and yellow light. The background is a deep black space filled with numerous small, distant stars.

콜
사
인

불청객의 방문은 이것으로 세 번째였다. 오지랖 넓고 쓸 데 없는 관심이 많은 이웃들의 표현을 빌려 보자면 ‘유명한 성질머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승연은 문 앞에 굵은 소금을 마구 뿌려댔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었다. 비행기는 말 그대로 떠났고, 조종간을 손에서 놓도록 만든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되자 다시 찾아오는 꼴이라니. 어이가 없어 웃음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주황색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한 화분에 물을 한 컵 부었다. 전에 키우던 화분을 말려 죽이고, 열려 있는 창문 근처에 두고 완전히 잊고 있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것을 그대로 둔 이름 모를 식물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겹지 한 마디정도 자라 있던 것 같은데, 상황이 확실히 심각하긴 한가봐? 따위의 생각이 들었으나, 제 알 바 아니었다.

창문 너머로 시선이 느껴져 그쪽은 바라보지도 않은 채 커튼을 치면, 그제서 분주하게 멀어지는 발소리들이 들렸다. 원래부터 자신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빨리 돌아간다고 느꼈고, 그 속도를 따라잡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언가 붙잡아 보려 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뭐라도 배우지 않았던가.

아마 돌아가서 다시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계획을 짜겠지.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와도 같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말이다.

저렇게 사는 게 맞을지도 몰랐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은 부지런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느린 것을 싫어한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된’ 세상에서 느긋함은 분명히 사치였다. 그러나 승연은 언제나 문제아에 한량 딱지가 떨어질 줄 모르는 인간이었으므로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병장고를 열어 맥주 한 병을 꺼냈다.

“참… 사람 귀찮게 하는 데는 도가 텃어, 그렇지?”

“아웅.”

잔을 꺼내기도 귀찮아 병째로 들고 소파에 털썩 몸을 묻었다. 텔레비전을 켜 봐야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을 테고, 지긋지긋한 타이머가 오른쪽 위 구석에서 점점 그 속도를 높여 갈 것은 안 봐도 뻔했다. 병의 입구를 그대로 입으로 가져가 해적마냥 술을 들이키면 문득 옆에 몸을 누인 제 고양이에게로 시선이 갔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대위님… 언제부터 이렇게 잠이 많아졌어.”

“웨웅.”

“하긴, 시간이라는 건 너한테도 똑같이 흘러가는 거니까…….”

두 번 만에 절반이 비어버린 병을 옆의 테이블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는 결국 습관적으로 리모컨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역시나 예상과 다를 것 하나 없이 의미 없는 이야기들만을 늘어놓는 뉴스가 가장 먼저 화면에 떠올랐다.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새빨간 글씨로 시간을 재는 타이머의 크기가 어쩐지 조금 커진 것도 같았다. 그게 거슬려 적당히 사고를 거치지 않고 볼 수 있는 채널을 찾아 애꿎은 버튼을 누르기만을 한참. 첫 방영으로부터 거의 이십 년은 다 되어가는 시트콤이 낮은 화질로 재생되고 있었다. 머리를 비우고 싶은 걸 어떻게 알았는지, 마침 승연이 가장 자주 돌려본 회차의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흘러나왔다.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화면 속 남자가 신경질을 냈다.

네가 자꾸 멍청하게 굴잖아, 이 뻔뻔이 소갈딱지야! 여자가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뻔뻔이 소갈딱지야, 하는 부분에서는 승연도 완벽한 타이밍으로 대사

를 동시에 소화했다. 분명히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다음 시즌이 나올 거라 했는데, 아마 제작사의 사정으로 무산되었던가. 아니다, 배우가 사고를 쳤던 것 같기도 하고. 감독과의 불화였던가? 아무리 좋아했던 방송이라지만 흘러간 시간 앞에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았다. 시간, 그래. 늘 그놈의 시간이 문제였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한결같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변화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시작되었다. 손톱을 자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시 길어버렸다던가, 미용실에 다녀온 지 몇 주 되지 않았는데 예약을 잡아야 할 만한 상태가 되었다던가. 그저 희한하네, 하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상함을 가장 먼저 눈치 챈 사람들은 노인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늘 새벽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아짐을,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이미 늙고 병든 사람들이라는 이유였다.

그 다음으로 위화감을 느낀 사람들은 학생들이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시간을 현명하게 써야 한다는 틀에 갇힌 아이들은 원래도 부족했으나 그나마 가진 것마저 빼앗겼음을 알았다. 그들의 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학업 스트레스로 미쳐 간다는 기사나 몇 번 나고 말았다.

세 번째로 이상해진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키우는 여자들이었다. 엄마, 하늘에 이상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말했다.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무 일도 아니라 말해주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본 여자들의 입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정에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는 아이들의 말을 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는가. 자식들이 떼쓰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민폐’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돌아다니다 금세 다시 가라앉았다.

연구원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야 세상에 파동이 일었다.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던 표준과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었다. 원래 24시간이었던 하루가 23시간이, 22시간이 되고, 하늘을 올려다 볼 시간이 없던 사람들의 눈에도 명확하게 들어올 만큼 하늘에 뚝

린 구멍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 구멍이 중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우주선 엔지니어의 향해 시뮬레이션에 계속해서 잡히던 오류였다.

밀도가 높아 중력이 무거운 행성의 근처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것과 같은 원리로, 하늘에 난 저 구멍이 이 별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소용돌이 형태로 움직이던 우리의 태양계가 온 나쁘게도 지나가던 블랙홀의 궤도에 진입했거나, 시간과 중력마저도 하나의 차원으로 다루는 존재들의 흥미를 끌었거나, 아예 제 2의 노아의 방주가 도래했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주 넓은 범위에서 빠르고 정확한 연산을 자랑하던 슈퍼컴퓨터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원인조차 명백히 규정할 수 없는 기현상이 창공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는 지구의 상공에 뚫린 검은 구멍이 창백한 푸른 행성의 지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들의 시간을 가속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중력장이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속도는 빨라지지만 할 것이고, 결국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속도가 소멸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인류가 절멸할 것이라는 것도.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과학자들이 비과학적인 희망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한들 차가운 금속 화면에 띄워진 결과는 같았다.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많아질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딱 십 년. 그리고 모든 생명이 점점 가속되어 그 생을 다하고 먼지로 돌아갈 시점은 거기로부터 이십 년 뒤. 성명을 발표한 미국항공우주국 국장은 달리 이 현상을 막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온 힘을 다하겠다고 연신 유감을 표하기만을 반복했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비관론자와 범죄율이 급증하고, 온갖 종교가 부흥하고 쇠퇴했다.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것인지 정체도 파악하지 못했는데 당장 다른 행성계를 찾아 이주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모두 종말론을 기다리고 있었나, 하게 될 정도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했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승연은 그 모든 소동과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여겼다.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고? 그럼 나야 오히려 좋

지. 저녁에 마시면 오후에나 깨던 거 아침에 깬다는 거 아냐? 따위의 농담을 하며 낄낄거리거나 했었다. 세상이 망하건 말건 알 바 아니었다.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흐르면 그제서야 남들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되겠구나, 정도였고, 이제는 그것마저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은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분명 나쁘지 않게 살고 있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별로 반갑지만은 않은 얼굴이 찾아올 때까지.

대체 언제까지 찾아올 셈인지.

“대위? 안에 있나?”

“.....”

대위는 무슨 얼어죽을 대위, 하고 승연이 태연하게 고양이 쪽으로 입모양했다.

“아까 소금 뿌린다던 거 다 듣고 왔네.”

“아, 그놈의 이웃들 입 한번 참.....”

불만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면, 딱 봐도 높아 보이는, 별을 많이 단 사람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위엄이나 연륜이 느껴지기는 했으나 동시에 열은 걱정이 서려 있기도 했다. 다만 그것이 승연을 향한 걱정이 아닌 스스로를 향한 것이라는 점을 빠르게 알아채고는 혀를 찼다.

“왜요.”

“긴히 할 이야기가 있네.”

보통 이런 말이 나오면 좋은 소식이 아니던데.

“들어오지는 마시고요. 거기 서서 하세요.”

“자네가 잠시 돌아왔으면 좋겠네.”

승연이 눈을 깜빡였다.

“예? 돌아가요? 뭐 어디를 말입니까?”

일부러 모르쇠했다. 그 일이 있었던 지 몇 년이나 지났다고, 그렇게 훌륭한 파일럿들을 보유해 놓고 은퇴한 지 오래에 술과 절친이 된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자네가 처음 날았을 때를 한 번 떠올려 보게.”

. . .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채 살았다. 그저 언젠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긴다면 발목 잡히지 않게 하라는 말을 순순히 따라 공부하다 보니 어디를 가도 문제 없을 정도의 성적표를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좋은 머리로 낳아 줬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는 건지 모친이 가끔 한탄하셨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떤 길을 선택했든지 간에 아무래도 상관없다 하셨을 것이다.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제 딸을 아주 정확히 파악하신 그분은 자식이 독립한 뒤로 두어 달에 한 번 하는 안부 연락을 빼면 인생을 즐기기 바쁘셨다. 그런 성정을 쏙 빼닮아 승연도 유유자적 흘러가기를 즐긴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도 문제 하나 없었던만, 사회는 자꾸만 문제아로 승연을 낙인찍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 적도 없었고, 담배나 술에 손을 댄 적도 없었다. 그러나 모두들 꿈이 없는 승연을 보고 ‘아직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며 평가하기 바빴다. 물론 성적표를 보게 된 사람들은 얌전히 입을 다물기는 했지만.

그저 가끔 든 의문이 승연을 공군의 길로 이끌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건지. 난 당장 무인도에 떨어뜨리나, 카지노 쪽대기 VIP룸에 떨어뜨리나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다들 하고 싶은 게 뭐가 그리 많기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자신만 스물 네 시간을 살고 다른 사람들은 서른여섯, 마흔 여덟 시간씩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만 했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라 했으니 제게만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을 싫어했던 적은 없다. 그렇게 빠른 속도는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을 뿐이다. 레이서가 되기에는 고무 타는 냄새가 싫었고, 우주라는 무대는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다. 음속을 따라잡는 전투기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마침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으니 이만한

기회도 없다 여

겼다. 대단한 사명감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시민권을 따기에도 유리하다고 들었고, 원래부터 머리 하나는 좋았으니. 승연보다 성연으로 불리는 일이 잦았다. 그것도 아니면 성윤. 승윤은 그나마 노력이 가상하다고 봐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마저 생윤이라고 불린 날에 제대로 뒤집어엎어 징계를 받은 뒤로는 다들 자신을 제대로 승연이라고 불렀지만.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모를 미친 여자.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관학교 시절 내내 필기도, 실기도 세 손가락 순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 따지고 드는 것도 모자라 필요할 경우 주먹다짐까지 마다하지 않았으므로 만난 사람들의 7할은 승연을 문제아로, 8할은 아마 양아치로 생각했을 것이며, 겹치는 걸 고려하면 둘을 합쳐서 딱 백 퍼센트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했다. 대위를 달고 특수부대에 편입될 때까지 훈련만 끝나면 한 잔 걸치러 가자며 능글맞게 동료들의 어깨에 팔을 걸치는 모양새가 전형적인 한량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으나 나름 그 생활에 익숙해지며 정을 붙여 가던 단계였다는 것만큼은 진실이었다. “생각해 봤는데, 역시 난 바운서. 선글라스도 새로 샀다고.” “야, 그거 네덜란드 말로 구운 달걀 아니냐?” “바운서는 너무 쿨하잖아. 오믈렛이라고 해.” “뭐?” “사이드 업이 좋냐?” “오믈렛으로 할게.” 공군 생활의 꽃 중 하나인 콜사인을 정하는 자리는 소란스러웠다. 시뮬레이션 조종을 시작하자마자 전투기를 땅에 꽂아버린 놈에게는 자폭 버튼의 레드라는 이름이,

모든 시험을 벼락치기로 해결
 하던 자식에게는 토르는 이름은 아깝다며
 묘모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폴 네임의 이니셜이 티-
 이-티인 동기는 리스, 술만 마셨다 하면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던 녀석은 뉴턴,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맞았잖
 아 (I was right!)라는 말만을 반복하는 놈은 레프트. 그렇게 한참을 이어
 지다 승연의 차례가 다가오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다
 들 한 마디씩 던지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 표정을 하고 있으
 니 전부 딱밤을 한 대씩 때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누군가
 가 먼저 말을 꺼낸 이후로 무수한 후보들이 쏟아졌다. “승연
 은 매일 화나 있으니까 치와와.” “저번에 우리한테 화내던 이
 니셜 따서 에이브(AYB) 어때.” “주먹 싸움은 안 지니까 페
 이퍼가 맞다고 본다.” “야, 다들 안 닥쳐?” 승연이 킬킬대
 며 맥주잔을 한 번에 비웠다. “난 해 지는 게 좋으니까 골
 든 아워의 골드.” 뻔뻔한 목소리 뒤로 장난스러운 야유
 가 이어졌다. “야, 나한테는 오믈렛 줘 놓고 자기 혼자
 골드냐?” “편파 판정 같은데. 저번에 한국 메달 뺏었
 던 선수 이름이 뭐였냐?” “소트니코바?” “이 새끼가
 미쳤나.” 승연의 콜사인은 결국 심판의 레프트로 결정
 되었다. 역시 아쉽다며 짓궂은 농담을 하는 녀석들
 과 서로 한 대씩 주고받아도 험악해하지는 않는

분위기가 좋았다. 잠시나마 남들을 한참 앞서나갈 수 있는 속도도, 전투기와 한 몸이 된 것 같은 감각도, 임무를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도, 무엇보다 하늘을 날며 바라보는 석양이 좋았다. 어쩌면 여기서 평생 뼈를 묻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그래,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 쫓겨나지만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마하 10의 속도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고 아직까지 가끔 생각하고는 했다. 아, 그 비행기 진짜 잘 뽑혔었는데. 그걸 못 잡아 본 게 유일하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농담할 때 동료들의 표정은 잘 기억나지 않았다.

“……이건 불공평해.”

“나 없으면 수석 될 놈이 입에 발린 말을 다 하네.”

숙연한 분위기 속 낮은 웃음소리가 적막을 찔었다.

“장난치는 거 아냐, 승연.”

“누군 장난치는 줄 알아. 난 이제 밥줄 끊겠다고.”

“명령을 어긴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말만 꺼내면 다들 상부에 항의해 줄 거야.”

“그리고 다 같이 징계나 받자고? 이야, 사관생 시절 생각나고 좋겠어, 아주.”

상부에서 조종사들의 능력을 과신한 탓이 컸다. 기체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강하게 피력해 왔으나 결정을 번복할 정도의 사유는 되지 못했다.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의 요충지를 파괴하고 돌아오는 일은 질릴 정도로 해 보았으니 땅에서 뜬 순간부터 잘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 문제가 그대로 터졌다.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기체 선정과 적 전력 파악 오류가 문제가 되었다.

무패전설을 이어가고 싶다는 거창한 명분 따위는 아니었으며, 그저 제가 통솔하는 동안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렇게 승연이 이끌었던 전투기 부대는 임무를 도중에 무허가 중단하고 복귀했다. 그마저도 끝까지 허가를 받고자 했으나 끝의 끝까지 타협이 불가능해 강행한 선택이었다고 합리화했지만, 모든 책임은 리더인 승연이 졌다. 불명예제대

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십 년이 넘는 세월이 한순간에 증발하니 허탈함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제게 미안해하는 동기를 보면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됐어. 내가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사람도 아니고.”

“그렇긴 해. 회사 체질은 아니긴 하지만.”

“어어? 좀 더 아쉬워하라고. 이제 누가 콜사인 맞춰 노래 만들어 주냐?”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장난스러운 목소리임에도 분위기는 풀릴 줄을 몰랐다. 옷은 똑같은 걸 늘 돌려 입었고, 개인 물건이 많은 편도 아니었으니 배낭 하나로 짐을 전부 챙길 수 있었다. 뭐라 더 붙잡지 못하는 동료들에게 멀리 나오지 말라며 손을 대강 휘저어 인사하고는 발걸음을 옮겼다. 부대 사람들이 밥을 챙겨 줘 훈련장에 자주 얼굴을 비치던 고양이가 승연의 옆을 졸졸 쫓아왔다. 가끔 몰래 간식을 챙겨 준 효과를 본 걸까.

“야, 나 이제 너 간식 못 줘.”

“웨웅.”

“얼른 가. 오믈렛이 너 얼마나 좋아하는데.”

“야오웅.”

말대답을 꼬박 하면서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걸 보니 이 녀석도 어지간한 고집쟁이가 아닐 수 없었다. 승연은 노을을 맞아 안 그래도 주황빛인 털이 거의 빛나는 것을 내려다보고는 조금 웃었다.

“그래, 넌 나랑 같이 가자.”

지는 해가 만들어낸 길어지는 그림자 너머로 곧게 뻗은 활주로며, 건조한 여름 비행장의 먼지 냄새, 귀를 멀게 할 크기의 엔진 소리 따위의 것들과는 그렇게 영영 이별한 줄로만 알았다.

...

“오래 안 들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어쩌다가 다시 작전회의실까지 들어온 건지. 잘못된 것도 없는데, 군복을 벗은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것이 소령이어도 몸에 힘이 들어갔을 텐데, 소장급이 직접 행차할 일이 대체 뭐가 있단 말인가. 승연은 괜히 앞에 놓인 커피 잔을 양 손으로 잡았다. 뜨끈한 온기가 퍼지니 긴장이 조금 풀려 폭신한 의자에 편하게 기대앉았다. 회의실의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띄워지는 것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익숙한 비행 시뮬레이션의 화면이었다.

그리워한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기체가 이륙하고 가속하며 비행하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조금 뛰는 것도 같았다. 하하, 심장은 원래 뛰는 건데. 따위의 농담이 떠올랐으나 뺄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다만 스치는 의문이라면 신형 전투기로 보이고 비행이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하지만 지금 있는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시나리오인데, 굳이 그네들 손으로 전역시켜버린 퇴역 군인을 찾을 필요가 뭐 있냐는 점이였다.

“어때, 가능하겠나?”

“죄송합니다, 소령님. 군번줄 떨어진 저한테 여쭙보셔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 그냥 술 좋아하는 동네 정비공이고, 그렇게 된 지 좀 됐습니다.”

“장난치는 게 아닐세.”

정직된 공기를 좀 풀어 볼까 했건만. 하여간 높으신 분들은 유머를 몰라. 몸을 기울이며 무게를 잡는 게 꼴 보기 싫었다. 기껏 만족할 만한 곳을 찾았는데, 쫓아낸 게 누군데 말이야.

“뭐어...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되는 거 보셨잖습니까?”

제법 건방져 보일 수 있는 태도지만 말한 대로 군번줄이 떨어진 지 오래이므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지금 자신은 완전히 민간인 신분이었으니 그저 어깨를 으쓱였다.

“그런데 이 시국에 전쟁이라도 하십니까? 기체에 특수한 포같은 게 달려 있던데 말입니다.”

승연은 소령의 눈동자가 빛나는 것을 눈치 챘다. 몇 년 간 단련해 온 축에 좋지 못한 예감이 제대로 걸려들었다.

“자네 말대로 책임자를 제대로 찾은 것 같군.”

“관찰력과 반사 신경은 아직까지도 넘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거, 대체 무슨 상황인지 설명이나 제대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할 말만 하는 게 전역할 때와 다른 게 하나 없었다. 괜히 더 삐딱한 태도를 하게 만드는 재수 없는 이 분위기가 기분 더러웠다. 자랑하려고 부른 거냐는 말을 목구멍 아래로 꼭 밀어 삼켜내고 있는 와중 소령이 헛기침을 내뱉고, 소장이 설명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 자료 화면이 넘어갔다. 그러진 청사진이며 항공사진을 천천히 뜯어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를 조합하자면,

“……구멍에 구멍을 내자, 뭐 이런 겁니까?”

관계자들끼리 시선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다. 구멍이 있을 위치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추진력, 지구상의 웬만한 압력은 버틸 만한 강도의 기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행 포까지. 전자기탄과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만큼은 바로 알아듣기 어려웠다. 승연에게 익숙한 쪽은 타격감이 제대로인 신탄이나 가끔 포격에 쓰는 유도 미사일이었으나, 둘 중 그 어떤 것과도 유사해 보이지 않았다. 이 시국에 신무기 테스트라도 하려는 건가, 하고 항공사진을 살피면 상공의 칠흑까지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며 연락 수신 지점 따위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비슷한 원리지. 저 구멍의 정체가 뭔지 아나?”

“제가 알아야 합니까? 뭐, 저 전역시키실 때 소탕 못 한 놈들 작품이리라도 한가봅니다.”

정말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운 꺾렁거리는 태도에 소령이 한숨을 쉬었다.

“몇 년동안 뉴스 정도는 보고 있을 줄 알았네만.”

“괜찮네. 어차피 작전을 설명할 때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긴 해야 했으니까.”

또 당사자의 의사만 쏙 뺀 의사결정이라니. 기가 차서 웃음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지만 승연은 가까스로 하, 하, 하. 하고 기계적인 웃음을 내

빨랐다. 어디 들어나 보자며 마음대로 하시라는 듯 손짓하면 소령은 다시 금 혀를 찼다.

“저건 작은 블랙홀과도 같은 존재라네. 쉽게 말하면 주변 물질을 끌어들이는 거지. 그 과정에서 저 주변의 중력이 한참 무거워져 근처에 있는 우리의 시간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걸세.”

“과학 수업을 좀 열심히 들을 걸 그랬나봅니다.”

“큘, 흠. 신행 기체에 단 포는 중력자탄일세. 비슷한 연구를 이미 진행하고 있어 생각보다 빠르게 개발을 마칠 수 있었네.”

“그런 걸 다 만드셨습니까.”

시큰둥한 태도에 목이 타는지 소령이 식어버린 커피를 벌컥 들이켰다. 그 모습을 보고 여전히 쥐고 있던 미지근해진 컵을 놓았다. 드려요? 하고 물었다가는 정말 화내려나, 따위의 생각을 잠깐 하며 눈을 꿈뻑였다.

“블랙홀이라는 건 시간이 오래 지나 중력이 어느 정도 평형 상태를 이루거나, 주변에 더 이상 집어삼킬 물질이 없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지.”

“지구인들에게는 둘 다 별로인 선택지인 거고 말입니까.”

“그래, 이해가 빠르군.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전부 멸종해 있을 거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래... 하늘의 중력에 짓눌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지.”

“이 중력자탄이라는 걸 블랙홀에 집어넣어 끌어들이는 힘을 완화시키는 겁니까? 차라리 원거리 포격이 가능하게 설치형 포 형식으로 만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 초대형 대포를 성층권까지 보낼 수 있다면 말이지. 이미 1차, 2차 출격이 몇 달 간격을 두고 나간 상태네.”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소장이 목을 가다듬었다. 연구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슬쩍 손을 들고는 바통을 이어받았다.

“.....생각보다 중력의 시간 왜곡이 심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와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목표 지점까지 다다르

면 그쪽의 1분이 우리의 1년과 비슷해질 거예요.”

“정밀한 계산이 불가능해 1차 시도를 통해 시간 왜곡을 어느 정도 계산했지만, 2차 시도는 출력이 충분하지 않아 실패했네. 이번이 3차이자 마지막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

승연이 눈을 깜빡였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벼락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깨달음에 책상을 양 손으로 쿡 치며 일어나면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커피가 흔들리는 잔에서 넘쳤다.

“이런 씨발, 그러니까 저를 자폭 특공대로 보내고 싶다는 겁니까?”

“대위! 말조심하게.”

“대위는 무슨 염병할 대위니까? 군생활은 그쪽에서 멋대로 전역시키셨을 때 끝났습니다.”

“진정하게. 이건 위대한 미연합중국의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존망이 걸린 문제일세.”

“존망인지 좇망인지 저랑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조국 중 하나에 십년 넘게 헌신했으면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막말로 그 조국이 절 건어찬 것 말고 해 준 게 뭐 더 있습니까?”

막말이든, 하극상이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다. 고위 간부의 심기를 좀 거슬렀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도 아니고. 애초에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잘못이었다. 앞으로도 기웃거릴 게 상상만으로도 귀찮아서, 빼앗겼던 게 생각보다 억울해서, 그냥 한 번쯤은 더 하늘을 날아 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해서 이 꼴이 난 게 아닌가. 의자에 걸어 둔 점퍼를 챙겨 들었다. 특수 임무 좋아하시네. 조국을 위해 몸 던지던 시기는 진작 끝났다.

“다른 사람 찾아보십쇼. 전 안 할랍니다.”

“잠깐, 대위!”

가운뎃손가락을 올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 성격에 많이 참았다. 소금이라도 들고 올걸. 신경질적으로 걸음을 옮기는 승연의 앞을 누군가 가로막고 섰다. 비키라고 따지려 고개를 든 순간 마주친 시선에는 당황과 반가움이 서려 있었다.

“레프트?”

“승연, 네가 왜 여기 있어?”

“나도 그게 궁금하다. 웬 미친 소리 들어서 기분만 잡쳤어.”

반가운 얼굴을 보니 언짢은 마음도 한 차례 꺾였다. 몇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등을 한 대 툭 치고는 표정을 살피자 안색이 그리 좋지 못해 보였다.

“아... 찾았다는 외부 인력이 너였구나.”

“외부 인력? 조국을 위해서니 어찌니, 하더니 뭐 어찌라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짜증 섞인 목소리에 레프트가 조금 웃었다.

“잠깐 걸을래?”

그렇게 실로 오랜만에 활주로 쪽으로 향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여객기 쪽으로도 시선을 두지 않았건만, 막상 열을 맞춰 주차된 상태의 공군기들을 보니 조금 들뜬 것도 같았다. 고려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제안을 받았어도 어쩔 수 없이 학습된 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침묵 속에 승연의 눈치를 보며 한참을 머뭇거리던 레프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무슨 작전인지 설명은 들었지?”

“어. 절대 안 한다고 했어. 미친 거지, 나가서 죽으라고?”

“하하... 블랙홀이 소멸하면 그건 그거대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말이야.”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훈련받았거든. 덧붙이는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우리? 그러고 보니 다른 애들은?”

레프트가 입을 다물었다.

“말해, 레프트. 다른 애들은?”

추궁이 이어졌다.

“오몰렛? 묘묘? 뉴턴? 리스? 제트랙? 올댓? 아무도 없어?”

곧 울 것만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승연은 무언가가 아주, 아

주 잘못되었다는 감각과 함께 내면의 한 부분이 고요하게 무너짐을 느꼈다. 충격과 공허함은 곧 분노와 행동력으로 바뀌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속도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능력이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표정을 본 레프트가 승연의 팔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다.

“오를렛, 리스, 올댓이 가장 처음 나간 조였어. 오존층을 벗어난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신호를 한 달을 기다렸다가…. 찾은 건 다시 지상으로 떨어진 신호기 뿐이었어.”

“그걸로 그 좇같은 시간 왜곡인지를 계산했다는 거고.”

“다음이 묘묘랑 뉴턴, 제트랙이었어. 아직 중력자탄이 조정 단계에 있었는데, 다들 마음이 급해졌거든. 다른 기체에 영향을 주는 계산에 오류가 있었어. 그래도 대규모 팀으로 나가는 게 현명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지, 하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지도 않다.”

한숨을 내쉬었다. 몇 년을 함께 훈련한 팀이 한 명 빼고 전멸했다니. 명예롭든 아니든 죽는 건 죽는 거다. 큰 메리트를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그저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끝날 거였다면 그 여섯 명의 삶에, 그리고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었지? 하얀 가운을 입은 범생이를 붙들고 으박지르고 싶었다. 과학의 진보에 기여했다느니, 진정한 멸망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는니 하는 소리는 전부 께변으로만 느껴졌다. 인류가 살아남으면 무엇 하나. 제가 지키고 싶었던 팀은 삶이 그대로 끝났다는데. 짧은 나이는 아니라지만 죽어도 될 정도로 오래 산 것도 아니었다. 신년에는 한 번쯤 연락해야지, 하는 다짐이 휴지조각만도 못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당장 회의실로 돌아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을 소장의 얼굴에 주먹을 가져다 쏘고 싶었다.

“다음은 나야. 아마 이번 시도가 마지막이 될 거래.”

“결국 팀을 다 잡아먹는구나. 당장이라도 때려 치워.”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러겠어. 집에 애들도 있는데…”

“감성을 자극하기라도 한 거야? 돌아올 방법을 마련했다고 쳐. 성공 확

물은 제대로 확인했고?”

불필요한 언쟁임을 알았고, 화낼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 역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이 답답함이 자신을 과열된 엔진처럼 ping, 하고 터뜨려 버릴 것만 같았다.

“승연, 나 무서워.”

시선이 마주쳤다. 말은 그렇게 한다 해도 두려움에 발을 뺄 사람의 눈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래도… 지키고 싶은 게 있으니까. 시도할 수 있는 것도 특권 이래.”

때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용감한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떤 결심을 했다는 의미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리고 그 전투기, 마하 10까지는 기본으로 간다더라.”

레프트가 애써 웃는 얼굴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러면 제대한 것도 전부 헛짓거리가 된 셈 아닌가.

“앞 순위도 없겠다… 처음으로 수석 기록 한 번 깨 볼까 싶어.”

건조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색한 침묵 속 공기가 가라앉았다. 레프트는 지켜야 할 게 있다고 했고, 낭만을 좋아하던 녀석은 세상 한 번쯤 구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냥 상관이 시키니 납득한 놈도 있었을 테고. 제가 지켜야 할 대상은 집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고, 세상을 구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알량한 정의감 따위는 없었다. 명령 불복종으로 제대한 제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건 직급이 아니었다. 궁금한 걸 알아내야 했고,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했던 성정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것이라 믿고 싶었다. 게다가, 한량에 불명예전역을 한 전직 군인보다는 진짜 대위가 기억해 주는 편이 모두에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는 억울해 보이지 않는 레프트의 어깨를 두드려 주고 걸음을 돌렸다.

흘러가는 속도가 점점 더 가속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목표가 생겼을 때는 원래 다 이런 건지. 시간은 전투기처럼 빠르게 지나가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신규 전투기라지만 조종하는 방법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금세 다시 익혔고, 특수한 성질이며 중력자탄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열심히 외우고, 단기 훈련을 거쳤다. 원래 자신의 기체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듯도 싶었다. 괴물 같은 적응력을 보며 희망을 가지는 연구원도 더러 있었다. 특출난 비행 실력만큼 어딜 가나 소란을 몰고 다니는 점까지 여전했다.

조금은 미안한 말이지만 팀의 여덟 명 중 하위권에 속해 있던 레프트보다 늘 상위권에 대부분의 작전에서 리더였던 승연을 기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터다. 조건은 세 가지. 첫째, 성공한다면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부족함 없이 연금을 제공할 것. 둘째, 자신의 고양이, 메리 대위를 잘 돌볼 것. 셋째, 선체 안에서 끝내주는 락 음악을 틀 수 있게 할 것. 마지막 조건을 들었을 때 황당하다는 듯 구겨지는 표정은 정말 억만금을 쥐도 보기 힘든 종류의 광경일 터였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차피 나보다 일찍 늙어 죽을 분들인데 옛 먹으라고 하고 째 버릴까, 따위의 고민을 했으나 한 번 발을 담그겠다고 선언했으면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끝까지 해 봐야 하는 법이겠지. 게다가 훈련 비행에서는 마하 4 이상으로 속도를 못 내게 하는 게 감질나 어떻게든 마하 10을 찍어주고야 말겠다는 기묘한 집념이 생긴 것도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 보였다.

“승연, 꼭 해야겠어?”

“뭘, 이제 와서 관두기라도 하라고?”

그리고 드디어 작전 개시 전날. 동료와 제대로 회포를 풀지도 못 하고 한참을 바쁘게 설명을 듣고 훈련하며 지냈으니 마지막은 조금 풀어주겠다는 말을 지켰다. 세 달 간 제한했던 음주도, 다른 사람의 방문도 내일의 작전 수행에 문제가 가지 않을 선에서만 풀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무슨 표정을 지었더라. 소령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서, 라기보다는

승연이 수틀리면 전부 먼지나 씹으라고 중지를 치켜세울 인간임을 알아서 겠지만 뭐 어쩔가. 제가 출발하면 돌아오기 전까지 암전히 숙성되고 있을 예쁜 병들이 아깝기만 해 몰래 가져온 하나가 드디어 빛을 발할 순간이 왔다.

“알겠어. 그런데 술은 마셔도 되는 거야?”

“잔소리하기는. 너 나 숙취 때문에 고생하는 거 봤어?”

“응, 많이 봤지.”

승연은 정곡을 찔렸다는 듯 눈을 데굴 굴리며 웃고는 말을 돌렸다.

“이거 비싼 거야. 줄 때 마셔.”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킬킬거리는 짓궂은 표정에 레프트가 한숨을 쉬었다. 반의 반도 차지 않은 잔을 빙글 돌렸다. 밤새 달리던 시절에는 이것저것 섞어 맥주잔을 가득 채우고는 그걸 나눠 마시기도 했는데. 유명한 수제 ‘미사일’을 만든다 쳐도 같이 마셔 줄 놈들이 뭐가 그리 급한지 이미 저승길 비행에 올랐으니 깔끔하게 위스키만 한 잔 하기로 했다.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오믈렛을 위해.”

“너 그렇게 여섯 명 다 부르려고.”

“들켰네.”

언제쯤 철이 드나, 하고 바라보는 듯한 눈빛에도 아랑곳 않은 채 위스키를 한 입에 털어 넣었다. 꿀을 살짝 넣어 숙성시켰다 해서 그런지, 끝맛이 달았다. 다른 사람과 마시는 건 또 오랜만이라 그런지, 자연스레 술병으로 가던 승연의 손을 탁 쳐냈다.

“너 안 마실 거면 나 줘.”

“음주운전은 안 된다며.”

“깐깐하기는.”

시시덕거리는 목소리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결국 더 마시지는 못 했지만 정말 평범하게 동창을 만난 것처럼 웃고, 떠들었다. 차라리 한창 돈이 없던 사관학생 시절 싸구려 맥주를 한 잔에 4달러에 팔던 그 펍에 갈 걸 그

랬나 고민될 정도로 예전과 다를 것 하나 없는 모습이었다. 사실 주제와 주제 사이에 침묵이 떠돌 때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 차라리 소음으로 그 공백을 채우고 싶었던 거였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떠나온 모국의 속담 중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틀린 것 하나 없었다. 갑자기 악덕 상판에게 끌려와 생환 가능성이 희박한 임무를 맡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도 조상님들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젠장.”

“갑자기 왜?”

“차고 불 켜 두고 왔다. 청구서 장난 없겠는데.”

마치 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승연의 천연덕스러운 태도에 착잡하던 낮의 레프트도 결국 웃을 수밖에 없었다. 잠에 든 것은 새벽 한 시였다.

• • •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됨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기도 했으므로 집합 시간은 해가 막 지기 시작할 때였다. 다가가는 사이에 해가 완전히 저 목표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어차피 블랙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르게 될 테니 빛이 있기만 하다면 괜찮지 않냐며 승연이 고집한 시간이었다.

새로운 기체와 높은 고도, 특수한 목적 따위를 위해 새로 맞춘 장비는 이전에 쓰던 것과 디자인을 동일하게 쓰고 있었다. 기특한 새끼들. 중얼거리고는 군번줄을 달았다. 이 작은 철 태그를 제외하면 복무할 때 쓰던 장비 중 반출이 가능한 것들도 빈정이 상한다는 이유로 배낭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똑같이 생긴 무장을 했으나 군번줄만이 사용감이 가득 남아 있었다.

덕분에 새로 하나씩 뽑고 좋네. 출격이 한 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여전

히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 승연을 믿어도 되는 걸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반, 태평해 보이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반 정도로 섞였다. 집에 있는 메리 대위의 주황빛 털로 만든 공까지 제대로 챙기고 나면 준비는 끝났다. 군번줄은 유리창 앞에 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프로토콜은 기억하고 있겠지?”

헤드폰 안으로 소령의 목소리가 울렸다.

“예이. 올라가서, 전체 출력으로 쏘고, 되면 다시 돌아온다.”

빈정거림이 조금 묻어나오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대위님, 진짜 알고 계신 거 맞죠?”

“네. 올라가는 길에 정해진 신호에 맞춰서 상태 보고 꼭 할 것, 중력자탄 충전 시부터 발사 시까지 통신기기 항상 켜 둘 것, 이후 현상 관찰 시에 돌발행동 하지 말 것…. 뭐 더 있던가요?”

“아뇨, 갈 준비 다 되셨네요!”

연구원의 목소리가 들리자 바로 상냥해지는 목소리와 정석대로 외운 행동 수칙에 어이없어하는 소령의 표정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것만 같았다.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쫓아낸 첫째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 정도는 너그럽게 봐 주셔야지. 암, 그렇고말고.

“오늘의 항공 유도원은 나야.”

전투기에 시동을 걸고, 오늘따라 더 길어 보이는 활주로로 천천히 나르면 음질 좋은 헤드폰 너머로 레프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몇 년 전에는 연습 때 실수를 할 때마다 파일럿이 아니라 유도원으로 전직해야겠다며 속상해하던 옛날 모습이 떠올라 입가에 짙은 웃음이 걸렸으나 헬멧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파일럿 대기.”

“콜사인 레프, 이륙 명령 대기 중.”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콜사인 레프, 이륙 허가. 출격하십시오.”

올림픽에 출전한 육상선수가 출발 신호를 들은 것 같이 허가와 동시에

엔진에 불이 붙었다. 활주로를 달리고, 날개를 조정하고, 엔진 출력을 증가시키면 공중에 뜨는 것은 금방이었다.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한 최적의 경로로 정확하게 날고 있었음에도 상황실은 얼어붙어 있었다. 속도 제한이 풀려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점점 속력을 높여 가는 승연의 신난 함성을 듣고 나서야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 상태를 점검하다 첫 번째 신호가 울렸을 때 승연은 보조 엔진을 점화했다. 속도를 올림과 동시에 보고할 시간이었다.

“레프, 기체 기준 오 분 경과. 보조 엔진 점화 성공. 예상 궤도 순조롭게 진입 중, 오버.”

“상황실, 지구 기준 십 분 경과. 그대로 진입해 두 번째 보고 기다리도록 하겠다, 오버.”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 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니. 중력 이상 같은 것에 빼앗긴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건지 예상조차 되지 않았다.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를 향해 갈 때 두 번째 신호가 울렸다.

“레프, 기체 기준 십 분 경과. 성층권 돌입 전 보고, 이상 무, 오버.”

이번에는 답이 돌아오기까지 잠시 기다려야 했다.

“상황실, 지구 기준 다섯 시간 십 분 경과. 예상 범위 내이므로 다음 단계에서 보고 바람, 오버.”

다섯 시간, 이라는 말에 제가 잠깐 기다린 건 기다림 축에도 못 끼겠구나 싶어 승연은 과장된 목소리로 헤엑, 하고 놀랐다. 지구의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기체의 시간은 점점 정상화되고 있었다. 한 쪽이 기다리는 게 아닌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달리고 있게 될 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한 것 같았다.

“레프, 기체 기준 십오 분 경과. 성층권 성공적으로 돌입 성공, 고도 상승 중. 육안으로 타깃 확인 가능, 오버.”

“상황실, 지구 기준 오 일 다섯 시간 십 분 경과. 가속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임무 수행 바람, 오버.”

만약에 중력장을 없애는 것을 성공하고,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간다 하

더라도 도착할 때 즈음이면 더 이상 고양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스친 탓에 조종간을 왼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레프, 기체 기준 삼십 분 경과. 목표 지점 도달 임박, 오버.” 기다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누구보다 빠르지만 누구보다 느린 사람이 된 기분은 정말이지 미묘했다. “상황실, 지구 기준 구십 오 일 다섯 시간 십 분 경과. 목표 지점 도착 시 상황 보고 바람.

강한 중력에 정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할 것, 오버.” 세 달이면

계절이 하나 바뀔

정도의 시간이었 다. 승연은

인생에서 계절 하나를 통째로

빼앗긴 셈이었

다. 그렇게 생각하니 손해를 본 것

같은 기분

이 들어 생물도 아닌 검은 구멍을 향한

경쟁심

리나 오기 따위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곧 목

표 지점에 도착한다는 기계음이 울려 승연은

속도

를 줄였다. 허기진 중력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

체를 마음대로 조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었다. 자

연

과 기술, 블랙홀과 편파심판 사이의 힘겨루기의 시작

이었다. 동료 셋을 잃고서 기관총처럼 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묵직하게 쏘는 것이 나을 거라는 결론을 바탕

으로 설계된 기체가 자동으로 중력자탄의 충전을 시

작했다. “레프, 기체 기준 삼십구 분 경과. 목표 지점

도달까지 티 마이너스 육십 초. 중력자탄 충전 팔십

퍼센트, 오버.” “상황실, 지구 기준 삼백육십오 일

다섯 시간 십 분 경과. 이후 연구를 위해 지금부터

통신을 유지하고 모든 상황을 보고할 것. 레프, 무엇이 보이냐?

오버.” 조종석으로 승연을 짓누르는 힘이 점점 커져 가고,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조종간이 덜덜 떨려왔다.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들어 목이 꺾이

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기체는 이렇게나 작은 블랙홀

에도 끌려가지 않기 위해 모든 엔진을 반대 방향으로 출력해야 했으므로

세밀한 조정 없이 그저 당기기만 해도 된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이 상상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오랜 군생활로 이미 알고 있었으나 그것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복잡한 게 많다며 미신을 믿지 않는 승연도 온갖 신을 생각나는 만큼 마구잡이로 마음속으로 부르며 버텨야 했다. 통신

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안내판이 반짝거리며 신호음을 일정하게 내뿜고 있었다. 지구에서는 지금도 일 분에 한 달이,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것이었다. 자폭 특공대라고 자조하기는 했으나 사실 여기서 죽고 싶지는 않았다. 땅 위에 두고 온 것들을 떠올렸다. 주마등이라는 건 과거가 떠오르는 것이라고 하던데, 돌아가서 보아야 할 것들만 보이니 제가 죽을 곳은 여기가 아닌 모양이었다. 이를 악물고 눈을 떴다. 조준사격을 위해 고도를 천천히 올렸다. 기체는 여전히 불길한 소리를 내며 진동하고 있었다. 사건의 지평선을 마주보도록 올라오면 파일럿이 정신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 설정된 자동 모드가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기계의 음성으로 들리는 발사, 티 마이너스 삼십 초. 하는 차갑고 딱딱한 소리와는 달리 승연의 눈에는 따뜻하고 혼란스럽게 뒤섞인 것들이 가득 들어찼다. 공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빛은 그렇게도 좋아하던 석양과도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가운데에 위치한 검은 구 너머로 수많은 은하수가 보였다. 폭발과 함께 태어나는 우주와 힘을 다해 죽어가는 별의 마지막 반짝임. 몇 달 전, 이제 지구의 기준으로는 이제 몇 년 전에 이룩했다 기록되어 있을 기체들과 똑같이 생긴 전투기들, 그 리고 그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주황색의 빛. 선체 아래에서 충전된 탄창이 장전되는 소리와 함께 발사를 위한 버튼이 활성화되며 불이 들어왔다. 이제 오직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 그대로, 그쪽으로 손을 뻗으며 여전히 깜빡이고 있는 인터콤으로 승연은 흘린 듯이 내뿜을 수밖에 없었다. “콜사인 레프, 여기는 골든 아워. 종말 방지 작전 최종 단계에 돌입합니다...”



A surreal landscape featuring a bright sun on the horizon, casting long, golden rays across a textured, dark ground. Above the sun, a series of nine glowing, semi-transparent circles are arranged in a gentle arc, resembling a celestial or artistic arrangement. The overall scene is bathed in a warm, golden light, creating a dreamlike atmosphere.

감
정
사

더 이상 쓸모를 잃은 기차표를 모닥불 안으로 던져 넣었다. 외투를 벗자니 춥고, 그렇다고 얼굴을 덮을 것이 없자니 너무 밍긔었다. 담배 한 대가 절실했다. 이왕이면 포장지에 폐암이 그려져 있는 걸로. 아르바이트생이 잘못 건네준다 해서 딱히 까다롭게 군 적 없는데, 신이 감동해 갑자기 담배 한 갑, 아니, 한 개비라도 내려 줄 만큼의 선행은 못 되었나보다. 내리쬐는 달빛이 거슬려 시인은 결국 스키용 복면을 거꾸로 돌려 얼굴에 씌웠다. 숨구멍이 없어 답답했지만 사람이 이 정도로 죽지는 않더라.

한국에서 시베리아로 이어는 철도가 복구되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평생 결항될 비행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할 뻔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희망적이나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하겠지만. 여정이 얼마나 길릴지 몰라 썩 값에 화물칸을 얻어 탄 덕분에 온몸에는 근육통이 생겼고, 설상가상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열차는 다음 주까지 운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로가 파손되기 시작해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나, 뭐라나. 중간까지 점검용 열차라도 얻어 탈 수 없겠냐 물었을 때 직원은 굉장히 미안한 얼굴을 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표정에 대고 뭐라 항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괜찮다며 손을 휘젓고 나온 지가 세 시간 켜였다.

러시아로 연결되는 한반도의 철도를 다시 잇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상품성이 되겠냐며 비웃었다. 전용 레일을 사용하는 초고속 열차가 나오고, 저렴하고 질 좋은 비행기가 보편화되고, 특수 기술을 개발

해 바다까지 횡단하는 부상열차가 이동수단이 된 지 오래인 시점이었으니 당연했을지도 모르겠다. 그 사실을 처음 밝힌 회견장은 회장이 드디어 노망이 난 모양이라고 웃어대기 바빴던 것 같다. 술렁이던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왜 그런 선택을 한 거냐고 물었을 때 굉장히 평온하게 답한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뭐라고 했더라.

사람은 낭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법이니깐요.

마침 열차 일정표를 띄우는 화면 옆의 전광판에서 회사를 소개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그 때의 인터뷰 클립은 H사의 비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장면 중 하나였다. 수익성이 나지 않더라도 언젠가 꼭 해 보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회장이 말을 이었다. 언젠가 딸아이와 대륙을 횡단하기로 했었거든요. 자칫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이었음에도 그녀의 평온하고 재치 있는 대답으로 기자들은 기삿거리를, 회사는 홍보 효과를 얻었다. 미소 짓는 그 표정을 몇 초 더 띄워 주더니 곧 열차의 경로를 알려주는 그래픽으로 대체되었다.

“시간표를 볼 수가 있어야지.”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타고 온 철도 회사의 영상에 관심을 갖는다 해도 그 누구도 뭐라 시비를 걸지도 않을 텐데, 이런 세상에서 낭만이라는 말을 들으니 어쩐지 자신이 찾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들킨 것만 같아 민망한 기분에 시인은 괜히 중얼거렸다.

“제대로 띄워 주지도 않네.”

출발, 목적지, 예정 시간이 맨 위에 적혀 있는 열차 시간표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기차의 수가 점점 줄어들며 폐쇄되기 직전이었던 간이역이었다고 들었다. 아마 길어야 서너 해 더 운영하고 문을 닫으면 열차의 노선은 더 간소화될 것이라고. 들었던 말처럼 다른 승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직원도 아까 본 두 명이 다인 듯 했다. 잠깐 몸을 녹일 정도의 작은 크기라지만, 대합실에서 불을 피워도 말리려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아하니 위험하며 말릴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는 곳도 아니라는 뜻일 터였다.

아마 자신이 굳이 화물칸을 타지 않았어도 승객용 객실은 비어 있었을 것이다. 빠르고 쾌적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이었으니 굳이 낡고 해진 역사를 경유해 가는 사람들은 적었고, 자연스레 가격은 더 내려갔다. 방금 태워 버린 열차표를 산 것도 딱 그 이유였다. 절대로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때문이 아니었다. 언젠가의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화물칸에 타기도 했다고. 좋은 이유도 아니었고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그 안에서도 즐거움을 찾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누군가는 그런 기억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 간다고…。 절대로 그런 이야기 때문이 아니었다.

화물칸에 탄다면 자신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믿기로 수십 번을 다짐했으니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반쯤 금이 간 커다란 창 사이로 내리쬐는 달빛이 굉장히 거슬려 시인은 다시금 자리를 옮겨 그 빛을 등졌다. 너무 밝았다.

다시 눈을 뜬 것은 약 열네 시간이나 지난 뒤였다. 더 이상 밝고 어두운 것으로 시간을 판단할 수가 없으니 시계를 차고 다녀야 한다는 점이 아직까지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 창문 밖으로 떠 있는 동그란 광원을 잠시 눈에 담았던 시인은 꺼져버린 모닥불을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는 새 열차를 놓친 건 아닐까 순간 철렁했지만, 전광판에 똑같은 광고가 돌아오는 것을 세 번째 본 후에야 아직까지도 배정된 차가 없었음을 깨달았다.

당신의 생체 리듬을 진짜 시간에 맞게 유지하세요, R테크 스마트 워치. 입이 열어 닫히기라도 할까 아무 의미 없는 문구를 괜히 중얼거리거나 했다. 오후 일곱 시 출발이나, 새벽 두 시 출발이나 운전하는 기관사에게도, 타는 승객에게도 거기서 거기일 텐데. 어떤 시간이 진짜인지도 헷갈리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괜한 것에 집착하는구나, 정도의 감상이 남으면 찢, 하는 소리를 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말을 걸어오는 목소리에 시인이 화들짝 놀랐다. 설마 이제 와서 불을

피웠다고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겠지. 이미 보려면 다 보았을 시점이나 어쩐지 양심에 켤기는 탓에 잣더미를 발로 지익 밀어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여행을 좀 갈 일이 있어서요.”

역무원의 표정이 여전히 친절하단 것으로 보아 적당히 둘러대는 데에는 성공한 모양이었다.

“이런 시대에도 아직 낭만을 즐기는 분들이 계셨네요.”

“하하… 뭐어, 회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유명하죠, 그 인터뷰.”

그리고는 짧은 침묵. 이대로 매표소든, 개찰구든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먼저 말을 걸어온 게 저쪽이니 그럴 희망은 없다. 비어 있는 명찰 쪽으로 힐끔 시선을 두었다가 다시 거두었다.

“그런데 어쨌쨌, 한동안 위쪽으로 가는 열차가 없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유감이라는 듯 역무원의 눈썹이 축 처졌다. 시인은 잠시 멍하니 눈을 꿈벅였다.

“…네? 적어도 삼 년은 더 운영할 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적잖이 당황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흘러나온다.

“이용객이 줄었다고 역을 바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조곤조곤 설명하는 사람에게 대고 불만을 표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그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그럼 어떡하죠? 전 위쪽으로 더 가려고 여기로 온 건데요.”

“으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한데…”

차분하던 목소리의 말꼬리가 흐려지자 시인은 의아한 낯을 했다.

“간이역에 걸맞은 간이 열차, 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서비스도 운영하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허가’했다는 쪽에 가까울지도… 저희에게 그런 큰 권한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요.”

여기서 한 번 더 병쩡 표정.

“……그럼 뭔데요?”

“지금쯤이면 거의 준비가 다 되셨을 것 같네요. 관심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잠시 따라와 주시겠어요?”

별다른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어쩔 수 없나, 정도의 가벼운 반응. 그 ‘허가’라는 게 서커스마냥 사람을 초대형 대포에 넣고 쏘는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정도의 우스운 생각이나 하며 시인은 외투를 한 번 더 잘 여몄다.

• • •

승강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안내하자 시인의 머릿속에 의심이 자리했다. 물론 이쪽으로도 철로가 깔려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출입문으로 나가야 할 정도로 멀리 있는 ‘방법’은 기차역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기엔 신뢰가 가지 않기 마련이므로. 사실 대안 같은 건 없고 열차도 한동안 없을 테니 역에 세 들어 살지 말라며 쫓아내면 곤란해지는 것은 이쪽이니 긴장을 풀 수 없었다. 반경 20km 안에 들어가 신세를 질 만한 구조물이 이 간이역밖에 없었던 것 같으니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기라도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역의 건물에 가려져 있던 작은 창고 같은 것이 드러났다. 완전히 낡아 페인트가 전부 벗겨진 나무 하며, 당장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문짝. 그리고 더 괴상한 것은 그 안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였다. 어쩐지 찐해 보이는 역무원의 눈빛을 애써 외면한 채 안내에 따라 그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기차예요?”

“본인 말로는 좀 간소하긴 하지만… 네, 그러저럭 굴러갈 정도는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전공자인 시인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모양새를 갖춘 작

은 차체가 좁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놀이공원에서나 볼 법한 어린이용 기차 같다는 부분만 제외하면 그럭저럭 볼 만 했다. 창고 한 쪽 구석에서 신문지를 얼굴에 덮은 채로 팔자 좋게 자고 있는 사람만 무시한다면, 저 사람이 동행인에, 이 열차를 만든 장본인이라면 편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못 가는 것보다는 아무렴 낫지 않은가. 역무원이 조심스럽게 신문지 아래의 사람을 쿡쿡 찌르는 것을 겹눈질로 바라보며 열차를 속 문질러 보았다. 창고처럼 페인트가 떨어지면 곤란하기도 하고.

“어? 영?”

“일어나세요, 승객 분 오셨어요.”

그 말에 신문지 아래가 움찔 떨렸다. 그러더니,

“……뭘이라고?!?!”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것 같은 고함소리가 이어졌다. 승무원은 익숙하게 귀를 막았고, 시인은 깜짝 놀라 뒤의 선반에 부딪히는 바람에 위에서 떨어진 큰 육각 너트 하나에 머리를 맞았다. 신문지 아래서 나온 사람의 시선이 정수리를 문지르는 시인의 쪽을 향했다.

“이야, 아직 낭만이 죽지 않은 젊은이가 있다니.”

50대는 죽히 되어 보일 법한 여자가 안경을 고쳐 쓰며 입맛을 다셨다. 얼굴에 주름이 잡힌 정도를 보면 아직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실례가 될 정도인 것 같으나, 머리는 완전히 희게 세어 있었다. 이름을 알기 전까지는 입 밖으로 내지만 않으면 괜찮을지도, 정도로 여기기로 했다.

“하하…….”

그 모습에 시인은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넉넉잡아 이틀 뒤에 출발할까 했는데, 손님도 생겼으니 준비를 얼른 끝내는 게 낫겠어.”

“벌써 가신다니 아쉬워요.”

역무원이 여전히 살가운 태도로 말을 붙였다.

“그래, 사람도 안 오는 강촌에 언제 또 다른 사람이 오겠어. 내가 2년만이라고 했던가?”

“정확히는 2년 14주 3일어요.”

“이야, 그런 것도 세고 앉았어? 어지간히 할 일이 없는 곳이긴 한가봐.”

처음 보는 사람의 무례함과 친근함의 경계를 넘나드는 화법에 시인은 멍하니 듣고만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걸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다 만든 건 아니지, 틀은 빌려 왔으니까. 그래도 이 예쁜이 엔진은 내가 손 봤으니 꽤 쓸 만할 거야.”

노인이 차체 앞쪽의 튀어나온 부분을 자신만만하게 텅, 소리가 나도록 쳤다. 어찌 저보다 나이가 배로 많아 보이는 사람이 또래 한량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했다.

“위쪽으로 가시는 거 맞나요?”

“그쪽도 그래서 역무원 아가씨가 데려다 준 거 아냐?”

“그렇긴 한데요…….”

낄낄대며 웃는 가벼운 태도에 시인의 말꼬리가 흐려졌다.

“그럼 됐네. 짐은 얼마나 되남?”

“얼마 없어요. 배낭 하나 정도…….”

“딱 좋구만. 마지막으로 점점 한 번 하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자고.”

“네, 네에…….”

폭풍이 한바탕 휘몰아치고 지나간 것처럼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입을 찹 벌린 채 하품하며 돌아서던 노인이 퍼뜩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보니, 자네는 뭐라고 불러주면 되나? 이름 적힌 표 발권은 못 해 주지만 말이지.”

“아, 시인입니다. 혹시, 그… …선생님, 은?”

상대를 뭐라 불러야 할지 몰라 짧은 고민이 섞였다. 어르신, 보다는 이 쪽이 낫겠지 싶어 시인은 속으로 뿌듯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인! 좋은 이름이구만. 낭만을 좇을 만도 해.”

만족스럽다는 듯 반응한 노인이 이어진 말에는 쾌활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님이라니! 말도 편하게 해도 된다네. 내 이름은-”

...

철로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둘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선로를 쓸 열차는 앞으로 한동안 없을 거라며 철로에 올린 채 달려도 좋다면 ‘허가’를 해 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사실 이 때문에 꽤 무게가 있는 장비를 여러 번 날라야 했으니 다행은 아니려나.

얻어 타는 신세기도 하고, 이미 잘 닦인 길 위를 달리는 게 아니라 눈과 얼음 속에서 미끄러져 조난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아무 말 없이 옮기는 것을 돕긴 했지만 말이다. 다음 날 아침 간이역의 두 명뿐인 직원이 약소한 도시락과 함께 배웅을 나왔다.

“오랫동안 다녀오시겠네요.”

“그렇지, 그네들은 심심해서 어떡하냐.”

아이들에게 추억을 새겨 줄 용도로 만들어졌을, 내구성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열차를 개조 하나만 믿고 추운 설원을 달려야 하는 일을 집 앞 공원에 마실 나가는 것 마냥 말하는 가벼운 태도에 슬슬 적응이 되는 것도 같았다.

“저기까지 몇 년씩이나 걸리는 게 아니라면 충돌 사고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중간에 기계에 결함이 생기면 꼭 선로에서 내려두고 확인하시고요.”

“잔소리는.”

손사래를 치며 장난스레 질색하던 노인이 앞 칸 위에 가뿐히 올라타고, 직원 중 하나는 그 뒤로 간소한 두 사람 분의 짐을 실었다. 조종간이 주가 되는 앞 칸과, 짐을 놓고 몸을 누일 수 있는 뒤 칸의 두 량짜리 열차.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간이역도 없을 테였고, 뜯어낼 수 있는 표도 없었다. 어디로 가게 될지, 어디서 멈추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여정이 될 것이었다. 감성적으로 변하려던 건 아니나, 망한 세상 속에서의 불확실함이란 그렇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그 생각을 읽기라도 한 건지, 시인의
 눈앞으로 불쑥 종이 한 장이 들어왔다. “자, 곧 출발하니 검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노인에게 시인을 안내해 준 직원이 빈
 티켓 용지를 내밀었다. “목적지가 적혀 있지 않은데요요.” “원
 래 그런 것들에 낭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인은 속이 울렁거
 리는 듯한 기분을 삼켜내며 종이를 받아들였다. “간이역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모양이네요.” 툭. 작은 소리와 함께 표가 뜯어
 졌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뜯어진 조각을 시인의 손에서 가져간 직원이
 인사했다. 마치 정말 검표 단계를 진행하기라도 하듯 구색을 맞춘 곳을 한
 동안,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기차
 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걷거나, 뛰거나, 있지도 않은 개설패를 타는
 것보다야 훨씬 빠른 수단이었다. 노인, S는 일주일
 정도 가 보고 그 뒤를 결정하자
 고 했다. 개조한 차체의 상태를
 보고 돌아오게 될지, 더 올라
 가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아마 이 사람
 이라면 기차를 밀고 끌어

서라도

더 올라가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했으므로 시인은 고민할 거리 없이 승낙했다. 어느
쪽이든 손해를 보는 것만 아니라면 되었다. 혼자 타는 화물칸도
바퀴가 굽힘과 함께 덜컹거리는 컨테이너, 들썩이는 무거운 짐과
이리저리 굴러 다니다 발에 채이는 작은 물건들의
소리로 절대 고요 하다고 할 수 없었음에도 이 작은
기차가 몇 배는 소란스러웠다. 원래 말하기 를 좋아하기
는 했다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낮을 가리는지라 그
저 S가 하는 말을 듣고, 적당히 맛장구치고, 묻는 말에는 답하
는 쪽에 가까웠겠다.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 지루해 보인다
오해하면 어찌지 걱정하기도 잠시, 출발 전과 다름없이 마냥
해맑아 보이는 동행의 슬슬 일을 너무 많이
해 상황까 염려될 정도의 고막으로 돌
리기로 결정했다. 말을 어
떻게 저리 많
이 할 수 있
는 건지,
신기한
사람.

광량이 많으니 식물이 썬 틈이 없어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으므로 사람들은 뭐가 들었는지조차 모르겠는 ‘단백질 바’를 유통하고 소비하기 시작했다. 진짜 단백질 구십 구 퍼센트, 하는 문구가 영 거슬릴 수밖에 없었다. 시인과 S는 그 누구도 원재료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짙은 갈색의 질긴 막대를 베어 물었고, 동시에 인상을 찌푸렸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웃음이 터졌다.

“더럽게 맛없네, 안 그래?”

“그렇네요.”

“말 편하게 하라니까.”

시인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이면 S는 익숙하게 고개를 까딱이고 만다.

“시인은 이게 뭘로 만들어졌을 것 같나?”

“음, 글썽요...”

“난 귀뚜라미에 한 표 걸지.”

질색하는 표정에 S가 다시 한 번 호탕하게 웃었다.

“그보다 이렇게 대화해도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운전하느라 바쁜 것 같으시더니.”

“내가 또 이 시대의 특혜를 안 받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 처음이니 직접 확인할 건 있었지만, 당연히 자동 조종 기능도 넣어뒀지.”

한 쪽 눈을 찡긍하는 모습이 퍽 알미웠다.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철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야.”

“보통 기차를 조립하는 것과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 다른 분야의 일입니까요.”

가만히 눈을 깜빡이던 그녀가 어깨를 으쓱였다. 여전히 손은 운전대 근처에 있지도 않은 채다.

“궁금한 게 많구만, 시인.”

“그래도 앞으로 며칠은 같이 타고 가야 하니까요.”

“알아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거지.”

“심심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군, 덧붙인 그녀가 잠시 고민하는 듯 했다.

S는 그제서야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때 잘 나가던 감정사였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보석감정사, 그러니까, 보석의 진품 여부와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 입담이 좋기로 유명해 찾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결국에는 진품만을 취급하는 가게들과 돈 많은 수요층 사이의 중개인 역할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던 나날들이었더랬다.

문제는 가치를 매기는 직업에 종사하다 보니 자꾸만 모든 것에 나름의 ‘객관적’이라 생각하던 기준을 대입해서 보게 되었고, S는 결국 그것이 선을 넘어버렸다고 했다.

진짜 말 잘 듣는 아이들은, 진짜 착한 사람들은, 진짜 모범생들은. 하나 뿐인 딸을 위해서라고 했으나 돌아보니 결국 자신의 자기만족을 위한 채찍질의 나열이었다나. 성인이 되자마자 연을 끊겠다며 모든 짐을 챙겨 나가는 딸이 하던 마지막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멀리까지 온 이유는 그 딸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일방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판단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것을 그만두고 세상을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그럼에도 버리지 못한 직업병 때문인지, 이왕이면 진짜가 보고 싶어 온 세상을 눈에 담아야 직성이 풀리겠더라는 것이다.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는 딸의 또래처럼 배낭 하나와 열정만을 믿고 돌아다닐 수는 없었으므로, 기계와 회로에 관계없이 어떻게든 닥치는 대로 기술을 공부했다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미련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기차도 손볼 수 있게 되고 좋지 않아, 덧붙인 S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두워질 생각을 하지 않는 지평선으로 시선을 두었다. 아무튼,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다 보니 십 년하고도 몇 년이 더 흐르고, 정신을 차린 사이에

세상이 망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딸을, 자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 어떻게든 출발한 여행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원래는 북극을 경유할 생각이었는데 말이지.”

S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 예쁜이 상태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나도 슬슬 장기전은 무리일지도 모르겠어.”

시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참 말이 없었다. S가 긴 침묵을 눈치 채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시인은? 어찌나 내 절반도 안 산 것 같은 사람이 이런 오지까지 온 건지 물어봐도 되려나.”

“별로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나는 뭐, 재미있어서 했나.”

하하, 기계적인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짧은 고민 뒤에 시인이 말을 이었다.

“저는요…….”

태어나기를 늘 남들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일일이 짚고 넘어가 기에는 당차지 못했고, 어차피 남의 것이라며 훌훌 털어버리기에는 무뎠지 못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날이 하루, 한 달, 일 년,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동안 시인은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 못한 채 남의 감정에 이리저리 끼이고 치이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이십 하고도 몇 년을 비슷한 역사를 차곡차곡 되풀이해 가며 갈피를 잡지 못했다. 자신이 지도였더라면 같은 장소만 빙빙 돌고 있는, 새로운 곳으로 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종류의 것이라 여겼다.

게다가 이 우스운 비극이 심화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감정이 풍부하다는 데 있었을 것이다. 터져나가기 직전인 제 풍선을 간수하기도 바쁜데, 남의 풍선까지 떠안으면 중력을 붙든 팔을 놓아 위로 날아가 버리거나, 꺾이는 힘을 조절하지 못해 전부 터뜨려 버리는 결말밖에 더 있겠는가.

세상이 망하고 난 뒤에도 시인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다. 정체 미상의 외계 물질이 달에 충돌했다며 호들갑을 떨 때에도, 각각의 조각난 달이 햇빛을 흡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생산하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너무 밝아 잠에 들지 못하겠다며 짜증을 낼 때에도, 지지 않는 태양 때문에 고향의 작물이 전부 영양분을 과잉 생산하다 말라 죽어버렸다며 비관하는 말을 들을 때에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가까이 했으니 이는 말을 달리 하면 쌓여 온 지층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라.

점점 쌓여왔던 사소한 압력이 결국 풍선을 눌러 팽, 하는 소리를 냈다. 남들의 그림자 속에서 타 죽는 것만 같았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다.

언젠가 책에서, 아니면 영화에서, 그것도 아니면 드라마에서…. 분명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그저 함께 하기 위해 가만히 앉아 있었던 때에 접했던 단어가 생각이 났다. 백야白夜. 터져 버린 줄 알았던 풍선은 사실 구멍이 나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작은 틈새로 새어 나온 바람을 타고 저 멀리까지 날아가 버리고 싶었다.

핑펫거리로 주워담은 변명이었지만, 여기까지 향하는 길에 ‘진짜’ 백야가 보고 싶었다. 사실 ‘진짜’니, ‘일상’이니 하는 모든 것들에서 도망쳤을 뿐이지만, 그걸 보게 된다면 남들의 집을 어떻게든 들어 보려 하는 자신이 아닌 ‘진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다소 단순하고 유치한 생각 하나만으로 훌쩍 떠나와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나鑑定士와는 다른 감정사感情史라 이거군.”

“그런 셈일까요…….”

너무 많은 말을 했다. 시인은 어색하게 눈을 굴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

“내 딸이 어디 가서 시인, 너처럼 혼자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찾았다고 하면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

“제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기까지 와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런 거야?”

주름진 손이 검은 머리칼을 마구 헹클었다. 기분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다.

“명심해. 제일 중요한 건 너야.”

이 말을 좀 더 일찍 해 줘야 했는데. 텃붙이는 S의 목소리는 후련하면 서도 어딘가 쓸쓸했다.

...

“혼자서도 괜찮겠어?”

“네, 철도가 있는 걸 보면 올라가는 길에도 역이 나오겠죠.”

눈과 바람에 페인트가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꼬마 열차는 기로에 서 있었다. 하나는 더 북쪽으로 향하는 길, 나머지 하나는 대륙 방향으로 향하는 길. 간이역이면서 노선이 여럿 있었던 모양이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의 결정을 재촉하는 열차가 없다는 점일까.

시인은 북쪽으로 향하고자 했고, S는 재정비를 위해 큰 역이 있을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다. 다툼 문제도 아니었고, 단순한 의견의 차이였으므로 결론은 간단했다. S는 기관사였고, 시인은 승객이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부여되었다.

“전부 챙긴 거지?”

“네, 이게 다예요.”

뒤 칸에서 짐을 내렸다. 짐이라고 해 봤자 커다란 배낭 하나에, 엉성한 지붕과 창문 덕분에 한동안 쓸 일 없던 스키용 고글 정도가 전부였지만. 별로 없는 짐이나마 챙기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으나 시인이 혼자 할 수 있다 만류했다. 승객이 열차에서 내렸다. 표는 여전히 백지였다.

“조심히 가렴.”

기관사는 승객을 짧게 안아주고 다시 기차 위로 올라선다.

“언젠가 또 보자.”

“또 만나요.”

풍선을 내보여서 좋을 것 없으니 작별인사는 담담하게.

“그 때는 네가 찾은 답이 뭔지 나에게도 알려줘.”

시인은 멀어지는 꼬마 열차의 뒷모습이 작은 점이 될 때까지 한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더 이상 시야에도 잡히지 않고, 엔진의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추위가 외투의 틈 사이를 파고드는 것 같을 때 다시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시인은 걸었다. 새하얀 눈 위에 반사된 햇빛이 너무 눈부실 때는 고글을 쓰고, 속삭이듯 하던 눈발이 비명으로 바뀌어 갈 때는 마스크를 올려 가며 계속해서 걸었다. 철로를 따라 걸으니 길을 잃어버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속해서 걸었다.

“아, 출다.”

혼자 여행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익숙해지기라도 한 건지. 누군가가 말을 걸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여행의 끝이 머지않아 다가오리라는 사실이 하나의 부담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아무도 없어요?”

괜히 외쳐 보았다. 야생 동물이라도 있다면, 미안하게도 잠에서 깨워 달아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다. 착한 아이는 못 되지만 외로운 아이가 되지는 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행선지는 식물은 물론이요 동물까지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린 듯 했다. 북극에, 나침반의 끝에,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어느 순간 철로가 뚝 끊겼다. 질긴 도망의 종착지에 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걸음을 우뚝 멈춘 그 순간 시인은 알았다. 이곳이 나의 북극이고, 나의 자기장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라는 것을. 시인의 심장이 고동치는 것이 느껴졌다. 여기가 끝이다. 방향의 종착점을 찍을 장소.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지평선 너머
로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
았다거나, 멀리서
자신을 환영하는
기차 소리가

들렸다거나,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지
는 않았다.

설원은 여전
히 고요했고, 백야
는 익숙하게 눈부
셨다.

그럼에도 충분했다. 이걸로 충분할 것이었다. 이십 하고도 몇 년의 짧은 생애 내내 지독하게 들러붙어 온 고민을 바로 해결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음을 자신의 세상의 끝에 와서야 깨달았다. 느리게 고글을 벗고, 마스크를 내렸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찔러 넣고, 시린 햇빛에 절로 눈물이 나오는 것을 흐르게

두
었다. ‘진
짜’ 백야를
마주할
시간

이었다.
아직도 보고자
했던 광경이 이
것인지 확

신할 수는
없었으나, 답을
찾을 수

있든 없든 간에 자신은 여기에 서 있다. 은하수를 횡단하는 열차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얀 밤을 수호하는 까마귀도 여기에는 없다. 살아 있는 생명
체라고는 오로지 자신뿐인 곳에서 시인은 소리를 질렀다. 곱게 쌓인 눈 위
로 소리가 메아리친다. 실로 오랜만에 내는 큰 소리였다. 그리고 시인은 웃
었다.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가. 아, 정말이지…….



분
갈
이

풀냄새가 짙게 뱀 손이 잡고 있던 줄기로부터 미끄러졌다. 잡히는 대로 입어 사이즈가 맞지 않는 방호복의 뾰뾰한 장갑도 문제였거니와, 원래도 충분하지 못했던 기운이 슬슬 한계에 달해 가고 있었다는 게 더 큰 이유였다. 건물 네 층 정도의 높이까지는 올라왔을까? 설 만한 곳을 찾으니 운 좋게도 멀지 않은 곳에 뾰뾰하게 힘이 들어간 새 이파리가 보였다.

올라온 시간을 수포로 돌리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쏟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긴 우주는 탄탄한 줄기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한 숨 돌리며 시선을 돌리면 아래로 보이는 반파된 자동차가 한 손에 들어올 법한 장난감의 크기로 작아져 있으나, 위로는 여전히 찾고 있는 등지가 보이지도 않았다. 온통 녹색으로 뒤덮인 곳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을 찾는 것은 애초에 목표가 아니었지만, 도심이라는 곳이 원래 이렇게 적막할 수 있는 것일지는 조금 궁금해졌다.

우주의 종말은 한없이 쏟아져 내리는 햇빛과 함께 진단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인큐베이터 신세를 면할 수 없었던 미숙아라는 딱지가 붙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약한 면역체계가 의심되어 바로 향하게 되었던 무균실, 그리고 엄격한 통제 하에 흘러간 18년의 시간. 스스로 바라는 것만큼, 그보다 더 멀리까지 뻗어나가길 바라며 지어진 이름과는 정반대로 우주의 세계는 10평짜리 하얀 방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에 역설적이게도 곁에는 늘 사람이 오갔으나 의사, 간호사, 가끔 먼

회가 허락된 가족 정도였으니 마주칠 사람의 종류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처음의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겨버린 방문이었다. 바깥이 잠시 소란스러운 것 같더니 건물이 통째로 흔들렸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다며 뛰쳐나간 간호사 언니는 그 길로 돌아오지 못했다. 제가 자꾸 말을 걸어대니 핑계 삼아 휴식을 취하러 간 것이라 의심하던 시간도 십 분, 한 시간, 그리고 한나절으로 이어지니 자연스레 걱정으로 바뀌었다. 두꺼운 유리창 밖의 세상은 우주에게 허락된 공간이 아니었다.

가끔은 자신을 걱정하면서도 저들끼리 차트를 보고 속삭이고, 몇 걸음 떨어지지도 않은 자동문 너머를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둬 둔 짐승 취급하는 것만 같아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내가 불쌍하냐는 등, 그렇게 볼 거면 전부 사라져 버리라는 등 패악을 부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다. 기억도 나지 않는 그때의 고향이 뒤늦게 이루어진 것 마냥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 조금은 쓸쓸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했다.

전에 들어왔던 퍼즐은 전부 맞췄다 해체하기가 네 번째였고, 그 전에 들어왔던 책도 수십 번은 읽었을 것이다. 눈을 감고도 조각을 제자리에 맞추거나 책의 활자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지경이 된 지금, 놀 거리라고는 꼼꼼히 소독된 블록 세트 따위가 전부였으므로 우주는 다시금 침대에 드러누웠다. 심심한 것은 일상이었으므로 기다림이 괴로웠던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증상은 소리로 찾아왔다. 무언가가 천장을 갉아먹는 것 같은 그 소리는 해가 떠 있을 시간에 한참을 갑작거리다 귀신같이 함께 잠에 들고는 했다. 며칠이 지났음에도 사람이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할 법한 일이었으나, 벽 속에서 들려오는 이 의문의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단조로운 생활에 변주를 주기 충분했다.

마지막 증상은 종말과 함께 찾아왔다. 이제는 익숙해진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것 같더니, 창 너머로 단단히 둘러져 있던 건물의 외벽이 그

대로 부서져 내렸다.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굉음은 없었으나, 철근과 시멘트로 된 벽이 뜯겨나가는 진동은 오후로 막 넘어가는 시간의 나른한 졸음을 깨우기에는 손색이 없었다. 책에서, 영상에서나 봐 왔던 밝은 빛이 무균실의 유리를 두드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마저 무너져 무균실은 더 이상 불가침영역이 아니게 되었다.

짧은 평생을 나가면 안 된다 배웠으므로, 아주 오랜 시간 노력보고는 했던 자동문을 스스로 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당장이라도 죽음을 맞이할까 하는 걱정애 우주는 영겁 같은 잠깐 동안 숨을 멈추고 가만히 섰다. 움직여도 뒀을 깨달은 것은 땀을 간질이는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였다.

성장은 필히 파괴를 동반한다. 새는 알을 깨야 하며, 나비는 번데기를 찢어야 한다는 것은 자연의 응당한 법칙이었다. 그러므로 뿌리가 뻗어나가며 자리한 반석을 부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었으리라. 병원을 부순 것은 지하로부터 뿜어 나온, 어떤 동화에서 그대로 빼 온 것만 같이 생긴 식물의 두꺼운 줄기였다.

한날 콩나무 한 그루가 멸망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누구도 계산한 적 없는 변수였으므로 이 생명력 넘치는 멸망은 가히 깜짝 놀랄 정도의 속도로 견잡을 수 없이 퍼져갔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이 식물이 꼭대기 층에 있는 우주의 개인실에 도달하는 데 오래 걸린 이유는 아래 일곱 개 층의 복도며 창문 따위를 전부 녹색으로 메웠기 때문이었더랬다.

우주는 잘 소독된 채로 제게 주어진 신발에 발을 대충 구겨 넣고 조심스레 두꺼운 벽의 바깥으로 나섰다. 건물이 두 번째로 흔들렸을 때 넘어진 모니터를 바닥에서 세워 보자 깨진 화면 너머로는 뉴스 속보가 그대로 얼어버린 채 고정되어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가장 큰 장난감이자 창이 되어 주는 것 중 하나가 책이었으므로 글을 읽는 방법은 깨우친 지 오래였으나, 노이즈 낀 화면 속의 글자를 식별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서울 시내에서 식물 성장 증폭시키는 바이러스 확산. 원인 불명.”

조용한 목소리가 남은 벽을 타고 울렸다.

“원인 불명…….”

우주는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입에서 굴려 보았다.

혀끝을 타고 굴러가는 단어의 조합은 가장 익숙한 것들 중 하나였다. 자신을 하얀 상자 안에 가둔 장본인이자, 본의 아니게 그 상자에서 꺼내주기까지 한 네 글자. 땅에서 솟아오른 이유 모를 멸망에 억울해 할 사람들은 많았겠으나, 그 단어의 조합에 누구보다 익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솔직히 생각해 보자면 공기 중에 풀잎의 향이 가득한 이 멸망은 죽음이나 파괴보다 생명과 시작에 가까웠다.

혼자 쓰기에는 넓지만, 한 사람의 세계라기에는 터무니없이 좁은 방에서 천천히 짐을 챙겼다. 당장 어디론가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언제까지고 반파된 무균실이었던 곳에 남아 있을 수만은 없었으므로. 달리 들고 갈 만한 물건이 많아 보이지도 않았다. 방과 똑같은 색인 옷 몇 벌, 하도 많이 읽어 표지가 떨어져 나가기 직전인 동화책, 여러 번의 꿈꿈한 소독을 거치느라 한 번도 써 본 적 없음에도 벌써 옷이 풀린 것만 같은 털실 모자와 같은 것들.

고요히 뿌리내린 종말이 그 줄기를 늘리고 가지를 뻗치고 있다는 사실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 그도 그럴 게, 원래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본 적이 있어야 적막 가득한 도시에 위화감이라도 느낄 테니까. 세상을 배우지 않을 수 없다며 유리창 너머 화면 속에서 본 분주한 출근길이나 또래 아이들이 다닌다던 학교,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린다던 여행지 따위의 것들이 조작된 영상이 아니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 밖에서는 목소리 하나,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지 한참이 지나버린 배낭을 뒤집어 속에 든 것을 전부 털어내고 있자면, 그 안에서 떨어져 나와 굴러가던 둥근 손거울이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췄다.

낯설다는 이유로 무의식적으로 피하던 햇빛이 그 반질거리는 표면에서 튕겨 나와 그대로 눈으로 들어올 때 우주는 인상을 살짝 찡그렸다. 정기적으로 행하던 검사에서 동공 반사를 확인하기 위한 불빛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 백열등이니, LED 전구니 하던 조명과는 다른, 진짜 빛. 그와 동시에 우주는 자신이 채기고 있던 것들이 또 다른 무균실에 들어가기 위한 짐이 있음을 깨달았다. 초라하고 빈약한, 깔끔하고, 가법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물건들.

상자에서 나와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다시 상자로 들어가기 위한 짐을 싸는 일이었다니. 옛날 언젠가 처음 보았던, 이름이나 얼굴 같은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 간호사가 자신이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 대답으로 배낭의 주인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는 걸 얼핏 들었던 것도 같은데. 그렇게나 밖에 나가고 싶다고 생각해 놓고, 정작 밖에 덩그러니 놓이니 다시 익숙한 우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니. 이것도 적응하고 길들여진 것의 결과일까. 유전학을 공부한 건 제가 아니니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리 없다.

어쨌든 같은 종(種)에 속하는 것은 맞았구나, 따위의 생각이 스치자 우주는 조금 웃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땀 뚫린 구멍을 통해 불어오는 바람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머리 위에 털모자를 얹어도 보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천천히 부서진 벽을 향해 다가갔을 때, 그 순간 두 눈에 가득 들어찬 것은—.

그 생명력을 뿜내듯이 하늘을 향해 거대하게 뻗어 있는 식물의 줄기. 병원 건물을 부순 것이 무엇이었는지, ‘원인 불명’으로 인해 그 생이 증폭되었다는 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연한 봄 풀꽃이 가질 법한 줄기의 색을 하면서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나무가 감히 견줄 수 없을 것 같은 두께로, 아스팔트가 무겁게 깔린 도로를 가볍게 뒤집어엮은 채로 줄기는 그곳에 있었다. 어릴 적 두꺼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읽어 주던 동화책 속 삽화에서나 상상해 보았을 법한 광경이었다. 압도시킨다는 말 외에는 꺼낼 수 없을 정도의 웅장한 풍광이, 이것이 비정상적임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앞에 펼쳐졌다.

여전히 먼지가 묻어나는 벽에 한 손을 짚고 그 장면을 바라보던 우주의 머릿속에 돌연 한 가지 생각이 바람에 날리는 흩씨와도 같이 부드럽게 스

쳤다. 그저 가벼운 호기심으로 심어진 그 생각은 관찰을 거듭하며 뿌리를 내렸다. 땅 속 깊이 박혀 웬만한 벌목 장비로도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은 단단한 몸체. 그를 따라 올라가며 군데군데 뻗어 있는 침대만한 크기의 이파리들. 큰 하나의 줄기 곁에 얇고 촘촘히 둘러진 발판과도 같은 덩굴들.

“……나, 저걸 올라가야겠어.”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듯 거대한 녹색에서 눈을 뗄 줄 모르던 우주는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은 줄도 몰랐다.

가방을 쥔 손에 조금씩 힘이 들어갔다.

가로막는 것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우려의 생각이었다. 할 줄 아는 운동이라고는 저 단칸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끔 있는 체력 측정에서의 걷기나 달리기 따위가 전부였고, 생물학이나 바이러스, 하다못해 식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가서 갈 수 있는 곳, 그보다 가도 되는 곳이 어딘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다.

모든 생활은 철저하게 감독되었고 해 왔던, 할 수 있던 일은 전부 누군가의 개입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다. 익숙한 얼굴은 커녕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자신이 저 나무를 오르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아니, 애초에 오를 수는 있을까? 화면에서는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평범한 균마저 위험하다고 하던 면역체계를 가지고 저 밖으로 나가는 게 과연 현명할까?

한참을 고민하면서도 시선은 끈질기게 줄기에서 발 딛을 곳을, 손으로 잡을 만한 곳을 찾아 내려가고 있었다.

걸음을 땔 계기는 한 차례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그냥 바람이 아니었다. 날갯짓과 활강이 만들어낸 작지만 예리한 그 흐름은 우주의 머리 근처를 쏘살같이 지나갔다.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나서야 자신을 만날 수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대로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신기해 그저 웃음을 터뜨리려 했으나, 멀어져 가는 새의 발에 잡혀 있는 것을 보고는 퍼뜩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먹이로
착각한 건지,
어딘가에 있을 등
지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했던 건지, 몇 안
되는 짐 중 가장 특별하게
여긴다 할 만한
분홍색 털실로
된 모자가 까마귀를 닮은
것 같기도, 독수리를 닮은 것

같기도,
앵무새를
닮은

것 같
기도, 아
니면 어딘가의 책에서
본 화려한 열대의 새를 닮은 것 같기도
한 새의 발톱에 채여 있었다. 아무리
가볍다지만 제 몸의 크기는 될 법한 물
건을 들고 어찌나 저렇게 잘도 날
아가는 건지. 건물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는

노릇

이니 망연자실하게 뒷모

습을 바라보았다. 모자의 형

태를 하고는 분홍색이 점점 녹색

배경에 찍힌 점이 되고, 잠시 충동적

으로 목표로 삼았던 줄기 위쪽을 향하

기 시작하는 것까지 눈에 담으면 우주

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야! 너 이리

안 와?” 말을 알아들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향을 질렀다.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인

것만 같았다. 걱정이나

짜증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몰려왔다. “야, 너

잡히기만 해, 이 새대가리야!”

한 번 더 소리치자

허락된 10평짜리 공간은 우주(宇宙)를 담기에는 너무 좁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이제야 저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줄기마냥 숨통이 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발을 동동 구르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 제가 오늘 운동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간호사 선생님, 가방 좀 빌려다 쓰겠습니다. 부모님은 뭐… 돈 많다는 양반들이 알아서 잘 계시겠지. 언니도 공부나 하고 있을 거고.

늘 소독된 상태로 보관되던 방호복 하나를 대충 잡히는 대로 꺼냈다. 햇빛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자란 우주에게 성인 크기에 맞춰 제작된 땀뻘하고 무거운 천을 입고 움직이기란 상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으나, 그렇다 해서 못 할 것도 없었다. 다시 상자로 돌아오든, 다른 상자를 찾으러 가든, 그것도 아니라면 이번엔야말로 이름값을 하든, 챙겨가기로 한 것은 전부 가져가야 하지 않겠는가.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하고, 잡히기만 한다면 구워먹어 버리겠어.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괜히 한 번 중얼거렸다. 장갑과 장화만큼은 가장 작은 것을 골라 신었으나 여전히 움직이는 게 편하지는 않았다. 방독면은 과감하게 생략하기로 했다. 뉴스에서 부르던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아직도 퍼져 있다면 가장 중요한 물건이겠지만, 이 상황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무관심보다는 조금은 들떠 있었던 탓이 더 크겠다. 게다가 ‘새 옷’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거웠고.

드디어 자동문을 넘어 병원의 복도로 들어서자 종말의 모양새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병실들로 보이는 문가 안의 공간을 꽉 채운 것도 모자라 바깥까지 비집고 나온 덩굴들, 분명 인테리어를 위해 가져다 두었을 터인데 하얀 자기 화분을 깨뜨리고 바깥까지 꾸물거리며 자라난 난초와 같은 것들. 자신도 양분으로 쓰이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 무성한 풀은 자라나는 생명이 으레 그렇듯 하나같이 아래에서 위로, 공격적이고 도전적으로 싹텄다.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쪽에 있어 속한 것조차 가끔 잊히는 것들이 가장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약한 것들의 반란이라 생각하니 걱정이

들기보다는 기분이 썩 괜찮은 것도 같았다.

병원 안의 지리를 모르니 벽에 붙어 있는 안내도를 찾기까지도 오래 걸렸고, 벌써 그 위를 덮은 새순이며 이끼 따위를 치워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걸렸다. 애초에 새순과 이끼가 같은 장소에 존재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가벼운 의문은 비상계단의 위치를 찾으려면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금방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계단에는 또 어떤 풀이 자라 있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어깨가 무거웠으나, 이제 이 건물 속에는 정말로 자신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이미 실감한 뒤였다.

예상과 다를 것 하나 없이 뻑뻑한 숲과 다름이 없어진 계단으로 내려오는 데만 한 시간은 족히 걸렸으니 지상에 도착했을 때 이미 탈진한 상태였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터였다. 평범한 병원 복도에서 들릴 법한 분주한 걸음소리나 보호자 간의 대화 소리, 수액걸이나 이동식 침대의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다음 진료 순서를 알리는 벨 소리, 의료기기가 작동하며 나오는 기계음 따위를 들어 본 적 없으니 기묘한 적막에서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니 이 고요한 평온은 오직 우주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이었다. 이상하거나 무섭다는 느낌보다, 깨져나간 유리 조각을 밟는 것은 굉장히 불편했다는 것 정도가 병원을 나설 때의 감상으로 남았다.

우뚝 솟아 있는 이정표가 확실하고, 무엇보다 슬슬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었다. 가끔 두꺼운 덩굴에 감싸여 찌그러진 자동차나 괴상하게 뒤틀린 나무에 꿰뚫린 건물 같은 것들이 보일 때에는 다른 사람은 없는 걸까, 가벼운 의문이 스치기는 했지만 연구소까지 딸린 병원이라고 했으니 근방 사람들은 다들 적당히 몸을 피했을 거라 낙천적으로 여기고 넘길 뿐이었다.

지금으로서는 좁아터진 화분에서 벗어나 막 뿌리를 뻗어나가기 시작한 시점이었으므로 타인의 존재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도 했고. 뜨개질은 할 줄 모르는데, 모자의 울이 다 풀려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지대

한 관심이었다.

밑동에 다다라 위를 올려다보니 우주가 있던 병원의 높이까지는 족히 닿을 것 같았다. 등산은커녕 한국에서 그리 흔하다는 동네 뒷산 한 번 제대로 올라 본 적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괜히 주먹이나 한 번 쥐었다 펴 보고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

꼭대기에 황금 알을 낳는 닭도, 금과 은이 가득 든 자루도, 말을 하는 하프도 없는 이 콩나무는 생각보다 매끄러운 단면을 가졌으므로 우주는 큰 줄기를 따라 자잘하게 나 있는 작은 기생 식물의 덩굴을 미끄럼 방지 발판으로 삼았다. 그렇게 올라오기를 한참 지나면 이파리에 기대 앉아 있는 지 금이다.

이런 잎이라면 강을 건너기 위한 배로 쓸 수도 있겠다, 같은 생각이 드는 걸 보니 체력적인 여유가 좀 생긴 모양이라고 우주는 스스로 진단을 내렸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 몸으로도 운동이라는 걸 했다고 쳐 주는 건지 다시 오르막을 등반할 만한 기운은 생긴 것 같았다. 갈수록 점점 가파르고 띄엄띄엄 자라난 식물의 혈관을 밟으며 우주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위쪽에 난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건 그때였다.

“이봐요, 이봐요.”

사람의 말을 따라하듯 어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누구 없어요?”

점점 유창하게 말을 건네는 모양새가 조금은 수상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에이. 진짜로?”

이쯤 되니 우주보다 말을 잘 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잎의 두께가 있어 그런지 햇빛이 채 투과하지 못해 저를 부르는 존재의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주는 오로지 머릿속으로 그 모습을 상상해야 했다. 또래일까? 목소리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 위로 올라온 거라면 등지를 본 적이 있을까?

없을 게 없으니 상관없으리라는 생각에 우주는 입을 뗐다. 그 와중에도 조심스러운 걸음 따위를 보면, 지금으로서 가진 유일한 목숨 아까운 줄은 알았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한 게 더 컸으리라.

“네, 여기 있어요.”

침착한 대답이 들리자 위에서 뭔가 퍼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 사람이다! 저 좀 도와주실래요?”

“도와드려요?”

“제가 조금 다쳐서 혼자 일어날 수가 없네요. 잠깐 손만 좀 빌려 주시면 되는데.”

혀에 기름칠이라도 한 듯 유창하게 말하는 목소리와 함께 무언가 딱딱, 부딪히고 있었다.

“앞이 생각보다 튼튼해서요. 그냥 올라오시면 돼요.”

왜 사람 목소리와 함께 퍼덕거리는 소리며,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건지 고민에 빠져 잠시 대답이 없자, 채근하듯 목소리가 다시 말을 걸었다.

“금방 가요.”

성격이 급한 사람인가. 정도의 생각을 하며 두꺼운 줄기를 빙 둘러 올라갔다. 푸릇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말을 건 사람에게 손을 뻗으려 내민 순간 우주의 눈에 들어온 것은,

“뭐야? 약해 빠진 인간이잖아.”

까마귀를 닮은 것 같기도, 독수리를 닮은 것 같기도, 앵무새를 닮은 것 같기도, 아니면 어딘가의 책에서 본 화려한 열대의 새를 닮은 것 같기도 한 바로 그 새였다. 모자는 온데간데없이 새만 덩그러니 이파리 위에 팔자 좋게 누워 있었다.

“.....앵?”

“심지어 멍청하기까지? 불쌍하다, 불쌍해.”

여전히 드러누워 올라다보고 있는 주제에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으며 혀를 차기까지 하는 모습이 영 알뜰기 짝이 없었다. 애초에 새가 혀를 찰

수 있기는 했던가? 그것보다 말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미 세상이 망한 것 같은데 크게 놀랄 것도 없으려나.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보며 여러 가지 상념이 스치다 펄쩍 정신을 차렸다.

“너, 내 모자 어디다 뒀어?”

“모오자아?”

“그래, 내가 쓰고 있던 걸 네가 아까 가져갔잖아!”

“내가 이렇게 가련하게 누워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별로 따뜻하지도 않던데, 주워도 안 쓰겠더라.”

“말 다 했냐?”

인간 한 명과 새 한 마리는 유치하게 한 마디씩 주고받으며 서로를 뚫어저라 바라보았다. 결국 아쉬운 쪽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모자 말이지. 아주 잘 알지, 저 위에 있거든.”

“그래, 알겠어.”

미련 없이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모습을 다급한 목소리가 붙들었다.

“잠깐, 잠깐! 알려줬잖아! 도와준다며!”

“내가 언제?”

“도와달라는 애기 듣고 올라왔으면 좋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지!”

뻔뻔하게 내뱉는 모습이 마냥 밋지만은 않아 우주는 잠시 고민하는 척을 했다. 새 주체에 말주변이 뛰어난 것 같으니 저를 설득하려 들거나 설령 말싸움이라도 한다면 다양한 대화 상대가 없었던 자신이 질 게 뻔했다.

“실수로 미끄러져서 날개를 다쳤어. 잘 숨겨둬서 나 없으면 찾는데 고생케나 할 걸. 나 재밌는 애기도 많이 알아. 너, 밀림에 뭐가 사는지는 들어나 봤어?”

“알았어, 알았어.”

동정심에 호소하다가, 되도 않는 협박을 하지를 않나, 되려 뻔뻔하기까지 한 태도에 말려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새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호기심이 일었던 것도 있으나, 사실 갑작스레 변해버린 세상에 혼자 던져졌다는 것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기도 하다.

적어도 말동무 하나가 있으면 이 나무의 위까지 올라가는 동안이라도
심심하거나 외롭지는 않겠지. 올라간 다음엔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문
득 떠올랐으나 들어올린 새가 생각보다 무거워 중심을 잃지 않도록 집중하
는 게 급세 우선순위가 되었다.

...

우주가 세상에 텅그러니 튀어나와 알게 된 것 하나가 있다면 첫째, 세
상에는 말하는 새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말하는 새들은 말이 정말, 정말
많다는 것이다. 한 걸음을 땔 때 과장을 조금 보태 세 마디는 들려오는 것
같았다. 처음에야 신기하고 매번 대꾸해 주지, 갈수록 신빙성이 없는 말을
하지를 앓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그저 딱박딱박 내뱉거나 하니 귀가 피로
할 지경에 이르렀다. 무균실 속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마이크 너머로 들
리는 목소리, 방 바깥을 오가는 발소리, 가끔 검진을 받는 기계의 작동음
정도였건만, 새로운 자극이 정도가 과했다.

“...런 일이 있었다니까.”

“어어, 그래.”

“제대로 안 듣고 있지?”

새가 빼액 소리를 내며 화를 냈다. 새 울음소리도 낼 수 있는 거구나.
푸드덕거린 몸짓에 무게가 흔들려 휘청한 우주는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
다.

“내가 뭐라고 했냐고!”

“.....고향에는 이것만큼 큰 식물이 많다?”

“그건 아까 한 얘기잖아! 전에 본 인간은 똑똑했는데, 넌 왜 그래?”

제법 성가시게 구는 새를 내려다보며 확 떨어뜨려 버린다, 으름장을 놓
으니 잠시간의 침묵이 찾아왔다.

“...그런데 전에 본 인간이라고?”

“흥, 방금 얘기해 줬잖아.”

삐진 티까지 내는 새라니. 처음으로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의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 또래 아이들은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 대학은 어떻게 가야 하나 걱정을 한다던데. 학교도 못 다니니 기록할 만한 생활부도 없지만, 대학교에 ‘다섯 살 어린애처럼 구는 말하는 새를 도와줌.’이라는 문장을 적어 제출하면 무슨 반응을 할지는 조금 궁금했다. 가져본 적 없는 평범한 일상을 향한 갈망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미안, 이번엔 잘 들을게.”

“진짜지?”

“응, 진짜.”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은 새가 자랑스럽게 말한 내용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었다. 자신은 모든 것이 거대하고 빠르게 자라는 정글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인간이 숲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분명 처음에는 온 정글이 경계했더랬다. 말을 할 수 있으니 동물들 간에는 정보의 확산도 빨랐고, 거대한 식물은 그 크기만큼 억세고 강하니 의식이 없어도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으리라.

그럼에도 거점을 만들어 그 비정상적이리만치 생기가 넘치는 곳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새가 말을 하고, 단순한 식물 줄기가 건물보다 크게 자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발달, 성장, 즉 ‘생명력’에 대한 비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는 것까지.

“흠쳐 들었다는 말을 참 당당하게도 하네.”

“원래 대장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일 재미있는 법이라고.”

누군가의 병을 고쳐 주고 싶어 이 뛰어난 ‘생명력’의 일부를 가지고 돌아가 연구를 해야겠다고 며칠 며칠을 온갖 식물을 채취하고, 동물들의 똥무늬를 쫓아다니며 빠진 것털 하나, 흘린 먹이 하나라도 주워 보관했다고 했다. 제 눈에는 널려 있는 것들 중 하나인데다, 심지어 몇몇은 쓸모도 없는 쓰레기 취급을 하는 물건들인데 보물처럼 취급하는 것이 신기했다나. 커다란 가방을 혼자 질질 끌고 나가는 틈을 타 그 속으로 들어갔다더라.

엄청나게 크고 시끄러운 새에 뒹다다, 그나마 조용한 곳으로 옮겨졌다

가, 낮잠을 자고 깨기를 반복했더니 처음 보는 공간 속이었다고 한다. 그때 까지 용케 안 들켰네, 우주가 생각했다. 가방 속에서 나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언가 물 같은 것을 떨어뜨린 식물 중 하나가 갑자기 미친 듯이 꿈틀거리더니 회색 하늘을 뚫고 나갔다고. 그리고 다른 식물들도 뒤 이어 같은 수순을 밟아 지금 도심이 이런 모양이 되었다고 말이다. 모자를 찾으러 날기 전까지는 뿌연 안개 같은 것이 온통 덮고 있어 어디를 날 수 있는지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계속해서 알미운 말만 골라 하던 새에게 돌려줄 수 있는 회심의 한 방을 아까부터 찾고 있던 우주는 검은 깃털을 고르는 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다.

“너, 거짓말쟁이구나?”

“거짓말쟁이가 모자도 찾아 주냐?”

흥, 얘기해 줘도 뭐라고 하네, 투덜거리는 새의 형체 너머로 엉성하게 엮인 나뭇가지 사이에 자리한 익숙한 분홍빛이 보였다. 새를 등지라고 부를 수조차 있는지 의문인 나뭇가지 한가운데 던지듯이 내려놓고 우주는 털 모자를 집어 들었다. 발톱에 걸려서인지 해진 군데가 여럿 보였고, 심지어 꼬트머리는 풀리기 시작한 듯 보였다. 새의 방향으로 뺨 고개를 돌리자 다친 게 불쌍하지도 않냐는 듯 지지 않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새의 눈에 결국 한숨을 쉬었다.

“넌 이게 등지야?”

“말했잖아, 모을 나뭇가지도 안 보였다고.”

“변명은.”

이제야 피로가 물려드는 듯 해 나뭇가지 더미 옆에 대충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제 뭐 할 건데?”

“몰라, 나도. 힘들어. 쉼래.”

제 힘으로 올라온 게 아니니 자기는 지치지 않았을 만도 하지, 하는 생각에 우주는 괜히 새를 흘려보거나 했다.

[illegible]

어
 차피
 여
 것도
 지만
 는 기
 째째한
 에서
 나는
 새로운
 웃으면
 불어와
 간질이고
 끝없이
 야기를
 비행기
 수는 있는 건지의 문제가 앞서겠으나,
 자신에게 자유를 준 녹색을 눈에 한껏 담
 자 다소 충동적인 답이 나온다. “……그래.”
 “진짜지? 나중에 무르기 없기다. 넌 거짓말
 쟁이 아니지?” “내가 너냐?” 핀잔을 주며 분
 홍색 울이 풀린 부분을 모자 안쪽으로 집어넣
 고, 입구를 활짝 벌려 새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어느새 익숙해진 묵직한
 감각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걸
 보니 슬슬 정말 힘들어서 정신이 나
 간 걸지도 모르겠다. 꾸물거리는 분
 홍색 보파리를 품에 잘 안으면 아래서
 또 다시 조잘거리는 목소리가 올라온다.
 “그래, 그럼 이름 알려줘.” “이름은 갑자기
 왜?” “신뢰의 표시지. 원래 자기가 누군지
 소개 먼저 해야 하는 거잖아.” “그걸 아는 너
 석이…” 우주는 잠시 뜸을 들였다. 정말 새로
 운 친구를 사귀는 걸까? 사람도 아니고 제 모
 자를 훔쳐간 새라니. 한 번도 예상해 본 적 없
 는 시나리오다. 그렇지만 정글까지 가겠다고 했는
 데 예전에 그려왔던 평범한 일상, 단조로운 이상
 이 이제 의미가 어디 있겠는가. “새도 이름이 있
 어?” “그럼 있지! 같은 종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구분해?” “내가 당연한 걸 물었네.” 멍청하다며 투
 털거리는 새의 부리 끝을 톡 치자 다시금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꼭대기의 공기를 들이마셔 본다. 아마
 속에 수많은 먼지며 균 파위가 가득하겠지. 그러나 이제
 는 어떻게 되든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녹색의 끝을, 그리
 고 시작을 보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으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꺼운 벽 너머에 있었다. 다시금 분홍색 모자가 꿈을
 거리며 보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짧은 시간동안 처음으로 호의
 적인 시선으로 눈을 마주친다. 내 이름을 알려주면 네 이름을 알려
 줘. 좋아, 우리는 앞으로 협력 관계가 되는 거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
 는 건 알지? 까탈스럽게 굴기는. 넌 지금 나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 하면서.
 투닥거림 뒤에 따라붙는 끼엑, 마지막 불멘소리. 알겠어. 내 이름은…….

빙
환
상

눈을 뜨니 온통 순백이었다. 손발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고, 축축하고 뜨끈한 무언가가 뺨을 간질이고 지나갔다. 눈동자를 굴려 그 방향을 향하자 회색과 흰색 털이 섞인 허스키가 신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발의 감각이 없는 것을 보니 예정보다 오래 잔 모양이었다.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자 이미 간이 텐트의 경사진 구석은 쌓인 눈으로 천장이 푹 꺼져 있었다. 추워서 그런 걸까, 했지만 이상하게도 춥다는 감각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것도 익숙해지는 날이 오긴 하는구나, 하고 벗어뒀던 마스크를 다시 착용했다.

“잘 잤어?”

머리 위에 눈이 한 마디는 쌓인 채로 들어오는 □□의 모습이 익숙했다. 새파란 모자를 벗어 쌓인 것을 털어내면 서현의 얼굴에도 눈송이가 튀었다. 여전히 차갑지 않았다. 정말로 적응한 걸까? 이런 추위에? 자신이 이런 변화를 겪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할 텐데. 자신보다 바깥에 더 오래 있었다면 오래 있었지, 결코 짧게 있었던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그러나 □□도, 뒤따라 들어오는 △△도, 옆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마저도 아, 춥다. 손에 감각이 없는 것 같아. 다리가 눈에 깔렸어, 차갑다. 하며 추위를 호소할 뿐이다. 여기서 춥지 않다고 하면 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두려워 서현은 그러게,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아. 하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기계적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혼란스러운 속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인지, 평소와 다를 것 하나 없이 이제 너희 차례라며 방한용 고글을 벗어 내미는 □□의 손에서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을 받아들였다. 그래, 바깥으로 나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 추위가 잠에서 덜 깬기 때문인지, 혹은 정말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무자비한 겨울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살을 에고 뼈를 얼어붙게 하는 추위만을 선사하기 마련이었으므로. 텐트 밖의 설원을 보고, 떨어지는 눈송이가 머리 위로 쌓여가는 것을 맞고, 축축한 부츠가 눈을 밟고 나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지금의 이상한 기분도 분명 사라질 것이었다.

“아까 다녀온 방향이 저쪽이던가?”

서현은 애써 태연하게 텐트 바깥을 손으로 가리켰다.

“응, 중간에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어서 목표하던 곳까지는 못 갔는데 ... 그래도 오늘내일 안으로는 텐트도 옮길 수 있지 싶어.”

□□가 옷에 묻은 눈을 마저 털어냈다.

“남은 데가 여기랑, 저기 둘이니까.”

△△가 거들며 구깃구깃한 지도와 마커를 내밀었다.

받아든 종이는 당장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너털너털했다. 서현은 실수라라도 찢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레 외투 주머니에 지도를 넣고, 마커는 ○○에게 건넸다. 여기까지는 익숙한 루틴이었다. 당장이라도 외투며, 목도리, 장갑 따위를 벗어도 괜찮을 것처럼 추위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여전히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나가면 나을 거야, 나가면. 눈발을 보면 괜찮아질 거야. 연유도 모른 채 그저 그럴 것이라 막연하게 속으로 되뇌며 다녀올게, 짧게 인사를 건네고 텐트의 지퍼를 다시 열었다. 바로 들이닥치는 바람이 모자 밖으로 조금 튀어나온 앞머리를 흐트러트리니 지나가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추위는 다가올 줄을 몰랐다. 문을 다시 단단히 잠그고, 위에 쌓인 눈을 치워낸 ○○가 잠을 깨기라도 하려는지 제자리에서 두어 번 뛰었다.

“가 볼까?” “가 볼까?”

그리고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 것 아니었다. 달리 중요한 대화가 아닌 부분이 두 번 들리는 것 같거나, 자신을 부른 적 없는데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 것 같거나. 눈이 가득 덮인 곳에서의 생활에, 섞여드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어쩌면 ○○가 자신을 놀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말은 다 한 셈이리라. 지도에 세 번째 엑스 표시를 그리고, 슬슬 돌아가야 하나 생각할 때쯤 옆에서 희망에 찬 탄성이 들려왔다.

“저기 봐!”

시선을 따라가면 눈에 반쯤 파묻힌 건물이 하나 들어왔다. 작은 크기와 위로 불규칙하게 쌓여 있는 눈을 보니 아마 천장이 무너지기라도 한 모양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아무렴 나았다. 물자가 없으면 아쉽겠지만, 추위를 완벽하게 막아 줄 만한 곳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거점을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했고. 지도에 방향을 바꾸는 화살표와 작은 건물 표식을 그려 두고, 종이를 다시 네 번 접어 넣었다. 분명 건물을 발견한 건 좋은 징조였고, 찾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텐데도 어쩐지 스멀스멀 뒷목을 타고 오르는 불안감이 가시지를 았았다. 아마 계속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때문일 테다. “건물을 찾았어!”

텐트로 돌아가 □□와 △△를 깨우고, 짐을 정리해 다시 같은 곳까지 오는 데에는 세 시간이 더 걸렸다. 천장에 구멍이 나 눈이 해일처럼 쓸려 들어온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시멘트로 된 벽이 한 겹 더 있으니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했다. ○○는 머리 위의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눈을 치우려 가겠다고 했고, □□는 쓸 만한 물건이 있는지 둘러보고 오겠다 자리를 비웠으며, △△는 서현과 함께 텐트를 다시 치고 있었다. 몸을 탈탈 털 허스키가 축축한 코를 서현의 다리에 쿡, 하고 짚었다.

“어떻게 이런 곳을 다 찾았대.” “출다, 그치.”

“운이 좋았지. ○○가 찾았어.”

“그래? 탐색에 이런 수확이 있었다니 다행이다.” “그래도 좀 나아질

걸.”

여전히 목소리는 사라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나마 나은 점은 ‘진짜’ 소리와 ‘가짜’ 소리 사이에 크기의 차이가 확실하다는 점이라. 물론 이 괴상한 환청은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뒤퍼까지 들리니 제대로 듣지 않으면 분명 헛갈릴 정도였다. 서현은 입을 다물고 웃었다.

“여기 대박이다.” “그러게, 좀 낫다.”

“뭐 좀 찾았어?” “들어갈 만한 곳이 있다면 좋았을 텐데.”

“예전에 대형 마트였던 곳인가 봐. 침낭이랑, 좀 더 파 보니까 식량도 있어.” “찾아보자.”

평소와 달라 보이는 모습 하나 없이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니 멀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언제쯤 유행했을지 모를 커튼으로 막아 둔, 무너진 틈이자 출입구가 열리자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덕분에 그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눈은 대충 다 치웠어. 깔려 죽을 일은 없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다행이다.” “조금만 더 둘러보고 가자.”

아 출다, 하며 □□에게 달라붙는 ○○의 모습에 서현은 관성적으로 웃었다. 그새 그 머리에 묻은 눈을 털어주는 △△의 손길이 펍 다정했다. 이 조합은 늘 그랬다. 든든한 □□, 상냥한 △△, 활발한 ○○. 자신까지 포함한 넷은 누가 먼저 만나 더 오래 알고, 더 많이 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으나, 그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아지 돌보기? 다시금 신물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덜 춥게 잘 수 있겠다, 그러게, 하는 목소리들 사이로는 여전히 환청이 따라붙고 있었다. 서현은 느리게 눈을 감은 채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으니 불편해 내려뒀던 마스크를 다시 올렸다.

“나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

“이 날씨에 산책을 하겠다는 너도 참 너다.” “나가기 싫다.”

“조심히 다녀와.” “오늘은 좀 실까?”

대답은 고개를 까딱이는 것으로 대신한 서현이 거점을 나섰다.

눈
은 계속 쌓
이기만 하는데, 온
갖 생각들이 질척하게
녹은 눈처럼 발에 따라붙기
시작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춥지 않다는 건 마냥 좋
기만 한 걸까. 이걸

들
리게 한
존재가 있
알려주고자
에게만
이

다면 나에게
하는 게 뭘까. 왜 나
들리는 걸까. 다른 애들
알게 된다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어쩌면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며 두고
떠날지도 모르는 노릇이다. 여기까지 같이 왔
는데 정말 버리고 갈까? 자신을 뻔 셋

커져만 갔
았다. 그러니 들
싶지도 않았고,
내가 바라는
것. 나를
그것

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눈
속에서는 소리가 잘 들
리지 않아야 하건만, 점점
다.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
켜서는 안 되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건 딱……. 나의 역할이 있는
필요로 해 주는 것. 일단
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과한 욕심
을 부린 게
되어야 하
는 걸까
?

사념에서 펄럭 깨어났다. 뒤를 돌아보니 건물이 보이지 않았다. 발자국 위로 눈이 새로 덮여 이제 와서 돌아간다 해도 제대로 돌아갈 거라 확신할 수가 없었다. 직선으로 걷고 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방향을 이리저리 틀었던 일은 정신을 빼놓고 걷다 보면 일어나기 쉬웠다. 게다가 따라 걸을 만한 보도블럭이나 선 따위가 없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새하얀 눈밭에서는 더욱 그랬다.

“아, 큰일 났네…….”

혼잣말을 따라하는 자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어느 방향이더라.”

그래서 괜히 한 마디 더 내뱉었다. 의도한 바에 딱 맞아 떨어지는 침묵이 좋았다.

그것과 별개로 돌아갈 길을 생각하니 막막했다. 아직 혼자 남겨지고 싶지는 않았는데. 조난당한 것 같다고 가만히 서 있다가는 될 일도 안 될 테니 일단 남아 있는 발자국을 거슬러 올라가기로 했다. 최근 들어 눈이 잘 쌓이지는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난 것 같지는 않으니 전부 덮여버리지는 않았을 테다.

설령 출발했던 곳의 흔적이 조금 덮여 있다 쳐도 건물을 멀리서부터 알아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듯싶었다.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으나 그렇다고 주저앉는 류의 인간은 못 되는지라. 서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실제로 흔적이 조금씩 끊겨 있었다. 게다가 눈보라가 심해져 근처에 건물 같은 것이 보이지 않으니 괜히 조금 불안해졌다.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지. 따위의 고민을 하다 혹시나 하는 희망을 걸고 높게 휘파람을 불렀다. 사피, 그러니까 얼떨결에 같이 다니게 된 허스키라면 소리를 듣고 와 줄지도 모르는 일이니. 잠시 숨을 고르곤 한 번 더, 이번에는 더 길게 휘익, 하는 소리를 냈다. 짙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리는 것도 같았다.

서현은 나 여기 있다며 구조 신호를 보내듯 계속해서 휘파람을 불었고,

결국 달려와 부딪혀 오는 허스키를 온 몸을 다해 받았다. 받으려고 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지만.

“사피, 들었구나!”

“멍!”

개가 해맑게 짓고는 얼굴을 마구 핥았다.

“아, 다행이다...”

젓빛 털에 얼굴을 묻었다. 눈썹이 마스크며 속눈썹에 달라붙었지만 아랑곳 않고 온 몸으로 개를 끌어안았다.

“넌 가면 안 돼, 사피.”

“멍.”

개와 함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둘은 무언가를 둘러싸고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간이 입구 근처에 나와 있던 △△가 가장 먼저 서현의 귀환을 반기고 안으로 들였다. 낡은 전시용 커튼으로 만든 담요는 뽀뽀했고, 사실 지금의 상태로는 크게 보온도 없었지만 단순한 줄무늬가 마음에 들어 덮어준 그대로 두었다.

“라디오를 찾았어.” “저기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

서현은 걸음을 멈추고 우뚝 섰다.

“손전등에 쓰던 건전지랑 똑같은 걸 쓰는 기종이더라고.” “누가 있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래서 일단 잡히는 주파수라도 있나 보는 중이야.” “사람인가?”

조금이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소리로 판단할 수 없으니 맥락을 읽어야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친구들의 목소리로 말하는 환청이 들려요, 하고 괴담에서나 나올 법한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서현의 어두운 낮을 발견한 ○○가 어깨동무를 해 오면 무언가 작은 물건을 내밀었다.

“이거 봐, 서현아.” “물건이 넘어지면서 난 거였나.”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의 작은 반원이었다.

“손전등은 없어도 이걸로 어떻게 잘 해 보면 되지 않을까?” “어, 잠깐

만.”

평평한 면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자 은은한 파란색 빛이 나기 시작했다.

“어때, 예쁘지?”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을 읽힐 수 있는 거리에서 혼란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던 서현은 그제서 대화의 주제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다.

“……아, 손전등 못 쓰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응? 그래도 우리 서현이, 어두우면 상황 파악도 안 된다고 잘 못 자잖아.” “이게 뭐지?”

더 이상 말을 엿지는 않고 그저 고마워, 하고 낮게 웃으며 손바닥에 전부 들어오는 작은 등을 받아들였다.

“○○, 애 괴롭히지 말고 데리고 와.” “이거면 우리도…”

“잔소리하기는. 우리가 뭐 들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괜찮겠지?”

○○의 손에 이끌려 텐트 앞으로 향하자 불에 바삭 말려 구깃해진 종이 위에 적어 둔 메시지와, 확장해 가고 있는 지도가 보였다. 지도에는 파란색 마커로 ‘안식처’ 라고 적혀 있었다. 어쩐지 기시감이 들었다. 당장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할 것만 같았다. 그 누구도 서현을 보고 있지 않는데,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아파오는 머리를 붙들고 메모 쪽을 읽어 내려갔다.

듣고 있는 생존자가 있다면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공식적인 지도를 찾으십시오. 우리 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물에 지도 비치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열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져 있는 지도가 맞습니다. 왼쪽 위부터 숫자를 매겼을 때, 5구역 중앙에 생존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장을 개조해 임시 보호소로 만들었으니 그쪽으로 오십시오.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라디오로 들었는데, 생존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있대. 그런데 지금 우리 상태로는…”

깊은 눈 위에서 있는 것 마냥 발밑이 푹 꺼지는 느낌이었다.

“마침 여기서 물자도 꽤 챙겼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다른 선택지가 있

는 게 아니니 어쩔 수 없잖아.”

아까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눈앞에서 눈발이 휘날리는 것 같았다.

“갈 거지? 갈 거지?”

이제 더 이상 진짜와 환청을 구분할 수가 없었다.

. . .

피난처로 가는 길이 시작부터 험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다.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되고 난 뒤로도 어느 쪽이 어느 방향인지 알기 위해 정찰을 나가야 했고, 거기에만 족히 삼 일은 소요되었을 것이다. 이 층 아래의 건물은 기록적인 폭설로 전부 안에 파묻혀 버렸으니 교회나 큰 건물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다. 도심에서 떨어져 아기자기한 전통 마을의 컨셉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던 도시였으므로 특징이 될 만한 건물들은 파묻힌 지 오래였다. 그렇기에 모든 건물에 지도 배치를 의무화한 것이었겠으나, 현재 방향도 모르는 와중에 지도는 직접 알아보지 않고서야 그 존재 가치를 온전히 다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위에 맞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욕을 엄청나게 먹었던 경기장이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있다니, 이만큼 모순적인 것도 없리라.

그나마 삼 층짜리 마트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텐트에서 소식을 들었다면 방향도 모른 채로 얼마나 더 헤맸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애써 힘을 내 보고자 했으나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안식처라는 세 글자를 본 순간부터 서현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몇 번이고 그냥 여기서 지내면 안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아냈다.

물자도 충분하고, 공간도 넓잖아. 물론 언젠가 물자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공간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바로 파훼될 논리로라도 붙들어 두고 싶었다. 가본 적 없는 피난처라는 공간이 어쩐지 불

길하게만 느껴졌다. 얼어 죽을 걱정 없이 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세 명의 얼굴에 대고 말할 수는 없으니 그저 묵묵히 떠날 준비에 있어 주어진 역할을 다할 뿐이다.

“서현아, 준비 다 했어? 저기인가?”

그리고 그 날은 다가오고야 만다.

“응, 다 된 것 같아. 모자랄까봐 조금 더 챙겼어.”

서현은 애써 웃으며 답했다.

“고생했어, 다들 준비 끝난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출발하기만 하면 되겠네. 나는 잘 안 보여.”

지긋지긋한 환청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서현은 침묵을 택했다. 아예 귀를 막아 필요할 때 부르는 것을 못 듣거나, 진짜와 가짜를 헷갈려 잘못 대답해 의심을 사게 되는 것보다는 아예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쪽이 나을 것이었다. 평소에도 말수가 많은 쪽은 ○○와 △△였으므로 크게 상관없기를, 눈치 채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 결론이었다.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묵직해진 가방을 고쳐 땀다.

“그럼 가자. 일단 가 봐야 알겠지.”

“바이바이, ◇◇◇! 누가 먼저 가는지 내기할까?”

“다들 마스크랑 모자 제대로 쓰고. 괜히 체력 빠지 말고 진정해.”

“멍!”

자신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조금 우스울지도 모르겠지만, 잘못된 이야기를 꺼내 완전히 튕겨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봉 뜯 소외감을 느끼며 무리에 붙어 있는 것이 나았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했다. 혼자 살아남는 것은 넷보다 훨씬 어려우며, 꼭 확실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혼자서는 싫었다. 그러니 스스로의 불안함을 애써 누르고 다시 설원으로 나서는 것이었다.

...

지금 일행이 있는 11구역에서 5구역으로 가는 길은 빈말로도 가깝다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처음 지도를 확인했을 때 ○○가 이 정도는 거의 정반대 아니야? 누가 구역을 이따위로 나뉘 뒀어, 하고 투덜거렸을 정도였으므로. 가로막고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눈에 파묻혀 있을 터였고, 만약 아직 건재한 곳이 있다면 잠시 들러 체력과 물자를 비축하고 다시 떠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직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눈을 뚫고 걸어야 하다 보니 사흘이면 주파했을 거리를 일주일하고도 이틀을 더 걸었다.

결국 도착한 피난처의 입구가 보일 때 즈음 신난 친구들을 두고 서현은 여전히 울렁거리는 느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다. 무언가 아주,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것 같은 이 기분을 뭐라고 칭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불길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저 당장이라도 세 명과 한 마리를 전부 들고 도망치고 싶은 이 불쾌한 감각의 이유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수용 인원이 거의 차서 저희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5구역이라고 방송했잖아요.”

환청이 사라졌다.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는데. 다른 곳을 찾아볼까?”

“정말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나으려나.”

아니,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기준이 뭐지? 왜 이제 와서 번덕을 부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숨을 내쉬 문지기에게서 사형 선고와 같은 한 마디가 떨어졌다.

“세 분까지는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이다.

“세 명이요?”

내 오랜 불안의 이유가.

“한 명을 두고 가야 한다고요?”

시선으로 형상화되어 자신에게 쏘았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진 진짜가 아니야.

“한 명을 골라야 한다면…….”

정말 있었던 일이 아니다.

“우리 중에 제일 맡은 역할이 적은 사람이 있잖아.” “그럼 들어가지 않겠어요.”

다시 목소리가 분리된다.

“안 그래도 요즘 이상했어. 녀이 나가 있고.” “돌아가자. 다른 곳에도 있겠지.”

그렇다면 이진 대체 뭐지?

“부탁해도 되지?” “그래, 괜찮아.”

원래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

쫓겨나듯 피난처의 문에서 돌아섰다. 끝이 보이지 않는 설원으로 달리는 내내 머리가 아팠다. 목소리가, 시선이, 끝까지 따라붙었다. 그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한참을 뛰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자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이런 와중에도 춥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운 것도 같았다.

서현은 흘린 듯이 모자를 벗었다. 다음은 마스크, 그 다음은 목도리, 그리고 장갑도. 두껍게 쌓인 눈은 옷가지가 툭, 툭 떨어지는 소리마저 전부 먹어치웠다. 마치 어느 동화의 남매가 빵 부스러기를 흘려 가며 길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렇게 흔적이 길게 남았다. 새들에게 쪼아 먹혀 사라진 부스러기와 같이 이 길도 눈에 덮여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찾아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터였다. 시야를 탁하게 가리는 것

이 눈보라인지, 북받쳐 오르는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점점 더 선명해졌다. 우리는 마트와 같은 사치는 누려 본 적이 없었고, 다 남아 무너져가는 교회에서 얻은 라디오에 의존해, 정확한 지도도 없이 서로만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 피난처에 도착했다. 물자도 넉넉하고, 친구들도 건강한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모두가 아프고, 다치고, 지친 상태였음에도 친구들은 한 명을 두고 간다는 것은 선택지로 고려하지도 않았다. 다 함께 다른 곳을 찾으러 가자고 했을 때 서현이 충동적으로 말했다. 내가 나갈게, 하고.

이제야 모든 것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래, 아무도 나를 버리지 않았고, 쫓아내지 않았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좋은 사람’으로, ‘친구’로 남고 싶다는 충동이 일을 저지른 것일 뿐이었다. 끝까지 같이 가자며 붙들던 손길을 만류하고, 웃는 얼굴로 피난처 안으로 들여보낸 것도 자신이었다. 기존의 거점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었고, 다리에 힘이 점점 빠졌고….

그러니 텐트에서 눈을 뜬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병결의 환상이었다. 때마침 나타난 건물도, 충분한 물자도, 순탄했던 여정도, 냉혹한 외면도 전부. 진짜 있었던 일을 들려준 것은 환청이었다.

“……추워…”

진실이라 인식했던 모든 것을 정반대로 생각했어야 했다. 방한구 없이 맨몸이나 다름없음에도 웃음이 나왔다. 앞으로 기울어 당장이라도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질 것 같은 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가 없었다.

감각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으나 관성적으로 내뱉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추워, 춥다, 얼어붙을 것 같아…. 친구들과 어떤 의견 차이가 있어도 공유할 수 있는 불변의 법칙이었으므로. 이 말 한 마디면 언쟁을 하던 중이었더라도 일단 따뜻한 곳을 찾는 게 급선무가 되는 마법의 단어였다.

그러나 지금 자신을 찾으러 올 사람은 없다. 그 사실이 서현을 못내 슬프게 만들었다. 스스로 무리에서 튕겨나간 존재를 기억하고 안타까워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눈으로 된 지옥 속으로 자신을 찾으러 올 거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추워.
사실 안
추워.

잇

나
외로워.
아냐.

제발 가지
말아 줘.
나도 너희와 좀 더 같이
있고 싶었
단 말야.

어

버

외투를 벗기 전 주머니 에 들어
있던 작은 램프를 멀리 던졌다. 드디어
남은 건 없다는 생각에 기운이 빠져 무력하게 눈발 한가운데 쓰러지듯 누
웠다. 피부가 붉게 변하는 것이 보였으나 여전히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으
므로 의미가 없었다. 눈이 자신을 전부 뒤덮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다른 피난처를 찾을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곳에는 제 친구들이
없을 것이다. 혼자가 된 사람을 무리 안으로 받아들여 줄 사람이 몇이나 될
까. 자신의 '이타적인' '선행' 따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좋았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이기적인 사람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으니까,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지. 그러므로 한 번 더 회피하

같이
가 줬으면
했어.

한 번
붙잡아는
주지.

사실

나는 혼자

인 게 조금 무서

웠던 것 같아

그래 서 가기

리 싫었 는데

마

지

기를 택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게 냉혹한 현실이든, 빙결의 환상이든 끝을 보고 싶었다. 모든 것이 버거워 눈을 감았다. 일행을 떠나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건물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사실 텐트에서 일어났던 그 날부터 늘 피곤했으니 긴장해 잠들지 못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을 뿐이다. 익숙한 암흑이 찾아오니 이번에는 정말로 잠이 쏟아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대로 평온함에 몸을 맡기고 의식을 저 너머로 보낸 줄만 알았다. 정말로 그랬는데. 무언가가 코끝에 날아와 앉았다. 눈꽃은 차가웠다. 다시 눈을 뜨니 온통 순백이었다. 손발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고, 먼 곳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P.
S.

머리를 앞뒤와 좌우로 돌리고, 팔을 가볍게 회전시켜 어깨를 풀어 주고, 한 쪽 다리를 펴고 반대쪽 다리를 구부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 손목과 발목까지 가볍게 털어 주면 기본적인 준비는 일추 끝났다. 평생을 반복한 기초 스트레칭임에도 최근에는 그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니 오 분이면 끝나던 준비 단계가 십 분으로 늘었다. 코치님이 계셨다면 날 새겠다며 호통을 치셨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정안은 조금 웃었다. 빠져나온 잔머리를 하얀 수영모 안으로 잘 집어넣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따라잡아야 하는 물 안의 사람에 시선을 두었다.

“셋, 둘, 하나…”

시작 신호는 울리지 않았지만 완벽한 자세로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발목에 묶어 둔 끈이 물 아래서 저항을 일으켜 속도는 평소보다 떨어졌으나 안전한 쪽이 나왔다. 무언가가 발목을 잡는 것을 끌고 가는 데에는 늘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물리적으로 일어날 줄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몰랐다. 이쯤 되니 진정한 ‘버스 태우기’의 베테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실없는 생각을 접어두고 손을 뻗어 옷깃을 잡았다. 수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익숙한 고등학교의 하복이었다. 얇지만 물을 잔뜩 먹은 천이 깊은 수심으로 끌어당겨지고 있었다.

구조 요원은 진로 고민에 없었는데. 슬슬 능숙하게 묶어둔 끈을 풀어 상대의 팔목에 묶었다. 팔을 들어 올려야 호흡기가 물 밖으로 잠깐이나마

나을 확률이 높았고, 의도치 않게 빠지거나 어긋나면 다리보다는 팔이 더 맞추기 쉬웠다. 다시 차가운 콘크리트로 돌아가 밧줄을 당기기 시작하면 묵직한 것이 느리게 끌려오는 느낌이 났다. 딱딱하게 굳기 시작한 피부를 직접 잡아끌다가 부러지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나았다.

“저기요? 어... 학생?”

당연하게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 정도면 빠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대부분이 원래의 색깔로 남아있다는 점이 그러했고, 머리카락 꼬트머리는 희게 변해 딱딱하게 굳었지만 몸은 산호珊瑚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찌르면 파란 피가 나올 냉혈한이라는 별명 값을 하듯이 창백하게 질린 낮이 모르는 사람이기까지 하니 가차 없이 두고 떠날 것이었으나,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마저 매정하게 외면할 정도로 나쁜 사람은 못 되었다.

진짜 적성에 안 맞는다.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직각으로 내렸다. 물을 뱉어낼 수 있도록 일정한 속도로 압박을 서른 번, 기도를 확보하고 숨을 불어넣기를 두 번. 선배들의 사고가 있었던 이후 의무적으로 배웠던 동작은 모범 예시가 될 법한 자세로 출력되었다. 기계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다 슬슬 포기할 때가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든 순간, 압박하던 손바닥 아래 깔려 있던 상체가 요동치며 사람이 물을 뱉었다. 등을 두드려 줄 정도의 세심함이 있는 건 아니었으므로 정안은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다 방수 가방을 챙겨 들었다.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살려 줬으니 자신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일 것이다.

혼자 다니는 게 편했고, 남을 끼워 줄 생각도 없었으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부터 남들과 같이 지내는 것에 재주가 없었다는 쪽이 더 맞겠다. 수영을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필요가 없이 오로지 스스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 나아갈 때의 물살을 가르느 느낌이라던가, 새벽 수영장을 홀로 쓸 때의 고요함이 라던가, 염소가 섞인 수영장 특유의 물 냄새 같은 것들은 그 다음이었다.

정안이 끈을 둘둘 말아 정리하며 상념에 젖어있을 때 목소리가 들려왔

다.

“저, 저기…….”

기운은 없어 보이지만 정신을 차린 건지, 덜덜 떨며 말을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가 겹쳐 보이는 것도 같은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한 건지는 정안도 알 수 없었다. 대답 없이 가만히 내려다보자 눈치가 보이는지 학생이 다시금 입을 열었다.

“저희 언니… 못 보셨어요?”

황당하다는 듯 내려다보는 정안의 눈빛에 학생이 잠깐 움츠러들었다.

“그,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

한 치의 망설임 없는 대답에 표정이 시무룩해지면서도 꾹꾹이 할 말을 하는 소녀의 눈이 빛났다.

“저랑 엄청 닮았거든요. 근처에 같이 있었을 텐데…….”

“네 근처에 있던 건 산호초밖에 없어.”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했다. 포기하라는 종용. 자신은 최소한의 도리와 확인하고자 했던 제 목적은 달성했으니 뒤의 일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직접 뛰어들 강이 있다면 알아서 하라지. 보아하니 그럴 정도의 용기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던 찰나, 얼굴이 보기 좋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울지 마.”

“위로해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그렇 땀한 듯한 목소리에 정안은 기가 차다는 듯 한숨을 내뿔었다.

“아니, 시끄러워.”

“너무해요.”

언제부터 아는 사이였다고 이렇게 말을 붙이는지. 감사 인사를 받았으면 받았지, 작별 인사를 할 사이는 아닐 테니 편지가 잘 있는지 확인할 겹 아무 말 없이 가방에 잘 묶어 정돈한 로프를 매달았다. 가장 방수가 잘 되

는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종이는 다행히도 무사한 듯 했다. 등 뒤에서 훌쩍 거리는 소리가 줄어들더니 이내 기웃거리는 기척 비슷한 것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 내용을 본단 한들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보지 말라고 화를 내는 것이 더 수상해 보일 것임을 잘 알았으므로 정안은 무심하게 변진 부분이 없는지 눈길로 훑었다.

“그건 무슨 편… 헉.”

저도 모르게 말을 뱉었다가 대화를 걸 만한 사이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라도 한 건지. 제가 물어 놓고 더 깜짝 놀란 듯한 반응을 하는 소녀 쪽으로 잠깐 시선을 두었다가 다시 떼다. 찢지 않도록 다시 비닐에 한 겹을 더 감싸 넣어두는 손길은 무감한 눈빛과는 다르게 퍽 세심했다.

“왜. 주인이 아는 사람이기라도 해?”

“젓어서 망가지기도 쉬운데, 그런 걸 계속 가지고 다니신다, 싶어서요.”

답해주지 않으면 계속 근처를 서성거릴 것 같으니 대강 물었더니 주관적인 기준에는 별 영양가 없는 말이 돌아온다. 정안의 목소리는 다섯 마디를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두어 번에 떨어져 나가고들 하던데, 마냥 유약한 건 아닌가 보지.

“편지 주인을 찾을 일이 있어서.”

“주,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까지 찾고 다니시는 걸 보면.”

“아니, 사실 제대로 본 적도 없어.”

“그러시구나아…….”

어쩐지 시무룩한 듯한 대답. 제 알 바 아니니 무시하고 슬슬 제 갈 길을 가려던 정안의 손을 학생이 다급하게 잡았다. 당장 뿌리치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 만들어진 바다 속으로 다시 빠질 것 같은 정도의 악력에 정안은 다시금 한숨을 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또 뭐.”

“가, 같이 가면 안 돼요? 저 수영도 잘 못 하고… 언니도 없는데 혼자 다니기에는 무섭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한심하다는 빛이 드러나자 움찔거리면서도 잡은 손을 놓는 일은 없었다.

“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정안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없어. 수영도 못 하면서 무슨.”

“그래도요. 저 짐 정리도 잘 하고, 그래도 힘은 센데.”

대체 몇 층짜리였던 거야? 차라리 물이라도 나오면 펼쳐내고 수영해서 가기라도 하지, 콘크리트로 된 바닥이 끝이 없었다.

“선생님이 저보고 끈기도 엄청나다고 했어요.”

“그래 보인다.”

건물들 사이에 돌아난 산호초를 끊어내는 것보다 이 애를 끊어내는 게 더 어려웠다. 걸음에 속도를 신자 다급해졌는지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 양 팔을 활짝 벌리고 정안의 앞을 막아섰다.

“제, 제가 그 편지 누가 쓴 건지 알아요!”

누가 봐도 핫김에 빨은 것 같은 말.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말이 었다. 당연하지 않은가. 편지의 주인을 찾기 위해 어울리지도 않는 조난자 구조 활동이나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말은 아니겠지, 하고 경고하는 듯한 빤히 눈빛으로 자신을 막아선 학생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지?”

“지, 진짜예요. 그 편지… 처음에 파란 스티커 붙어 있지 않았어요?”

정안이 드물게 멍한 눈을 했다. 처음 내밀어진 편지를 받았을 때는 분명히 푸른 꽃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더 말해봐. 그걸로는 부족해.”

“음, 그럼…. 봉투에 적힌 이름, 거,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건진 것은 내용물뿐이었으므로 이름과 스티커를 안다면 확실히, 편지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안다는 뜻이 된다. 아무렇게나 때려 맞 추려던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을 구조하고 다닌 소득이 없

지는 않았던 셈이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쓰는 걸 본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썼는지도 알겠네, 그럼.”

당장이라도 지나쳐 떠날까 파들거리며 떨고 있던 소녀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양 손을 제 허리에 올리고 펍 당당한 자세를 했다. 그러더니 한쪽 손의 검지만을 펴 정안을 쳐, 하고 가리키더니 한다는 말이.

“거, 거래를 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거래… 라고.”

“……네! 편지 쓴 사람, 찾고 싶으신 거 아니었어요?”

조금 의기양양한 태도에 초롱초롱한 기대감이 실렸다. 그 표정이 알뜰긴 하지만 썩 미운 것만은 아니라 정안은 잠시 고민했다. 혼자 살아남으면 그만인 곳에서 다시 수영을 하려 생각한 것도 결국은 편지 덕분이긴 하니. 빗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지라 어떻게든 찾아내 갖고 떠나리라 다짐했건만, 세상이 갑자기 뒤집힐 줄은 몰랐다.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라는 추측 하에 짐을 꾸린 것이었으니,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절실하긴 했다.

“……좋아. 네 조건은 뭔데?”

“저희 언니 찾는 거, 도와주세요.”

또 언니 타령이다. 언니든, 동생이든 있어 봐야 좋은 꼴만 보고 살지는 않던데. 아무리 세상이 망했대도 자신은 별 걱정도 안 드는데, 저기는 뭐가 저리 각별한 건지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이래서 다른 아이들이 싫어한 걸까. 후회는 되지 않았고,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기도 하다.

“어디 있는지는 어떻게 알고?”

“그런, 음… 은인님? 은 편지 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시면서.”

징징대기만 할 줄 아는 녀석이 아니었다. 당찬 태도에 정곡을 찔린 정안은 그 호칭에 벌써부터 질린다는 듯 눈을 굴렸다.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서 너는 네 언니를 찾고, 나는 편지를 쓴 사람

을 찾자?”

“맞아요! 이왕이면 저희 언니 먼저 찾아요.”

“불공정 계약이잖아, 그건.”

“편지 쓴 사람 먼저 찾으려면 저 두고 가실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었다. 신뢰를 얻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건 제 업 보겠지만, 무엇보다 실제로 저 생각이 잠깐, 시작 휘슬과도 같은 시간 동안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겠다. 이미 무너져버린 건물이 꺼져라 한숨을 내뿜은 정안은 느리게 고개를 들어 시선을 마주했다.

“그래. 딱 사람 하나씩만 찾는 거다.”

“야호!”

뛰가 그리 좋은지 저를 둘러싸는 원을 그리며 자리에서 뛰는 학생이 시끄럽기만 했다. 종말 이후로 말을 붙인 사람 0호는 정안의 머릿속에서 소란스러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평가를 받았다. 일단 거점으로 돌아가자며 걸음을 옮기며 0호는 옆에서 재잘대기 시작했다.

“제 이름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

“나이는요? 저 완전 1학년 같지 않아요?”

“필요 없어.”

유의미한 정보라고는 단 하나도 오가지 않는 대화였으나 지치지도 않는지 0호가 다시 말을 붙였다.

“그런데 은인님?”

“……선배님이라고 불러.”

“헉, 진짜요?”

같은 학교 다니셨구나야, 덧붙이는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기분 나쁜 웃음기가 섞여 있어 정안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다시금 쪼그라든 듯 보이던 0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살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안은 날 때부터, 이모의 말을 빌리자면, 비범했다. 첫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했으며, 둘째로 남들을 제대로 인식하기를 어려워했다. 공감의 경우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을뿐더러,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신경 쓰이지 않아도 그것이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연결되지만 않으면 대개 자신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던지 간에 그대로 하게 두었다. 인식하지 못하는 쪽이 조금 더 큰 문제였겠다. 대부분의 얼굴이 전부 거기서 거기, 위에 뿌연 막이 씌워진 것처럼 민둥해 보였으므로 아주 어린 시절에는 보호자를 구분하기도 어려웠다고. 너 그때 모르는 사람 따라가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는 이모의 호들갑은 몇 년째 듣느라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다. 어릴 때 어쨌든 간에, 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으니 혼자 지내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말로.

그러나 정안의 평가로는 하나의 정글이나 다름없는 학교생활이 순탄했을 리 없다. 따돌림을 따돌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부모님과 이모가 학교에 몇 번이나 불려오기를 반복했다. 자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도 주변이 더 난리니 그저 난리를 치게 두었다. 교실이며 교무실이 정안의 주위로 소란스러우니 자연스레 덜 시끄러운 곳을 찾게 되었다. 그 대안이 물이었다.

진로로 선택하게 될 정도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나 묻는다면 아니라는 쪽이었다. 그저 번잡한 게 싫었고, 가장 깔끔하고 정석적인 길이 놓여 있는 것을 따라갔을 뿐이다. 정안의 사정을 아는 똑같은 코치와의 비슷한 훈련 속 가끔 만나던 학생만이 유일한 변수였다. 별다른 소개도, 인사도 없이, 자신은 수영을 하지도 않으면서 연습을 지켜보러 오던 아이. 제가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리 없으니 먼저 인사를 건넨 적 없었고, 그 학생도 멀리서 지켜보는 쪽이 더 익숙한 듯 했다.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도 아니면서 단체 연습을 할 때 정안의 팀이 이겼을 때 환호성을 질러 온 수영장이 울렸던 적도 있었던가. 아마 그때 퇴장 당했던 것 같기도. 서로 다가가지 않으니 딱 그 정도의 존재감이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 하나, 다들 것 없는.

높았던 벽을 무너뜨렸던 것이 정안의 레슨
마지막 날 건네진 편지 한 장이었다. 덜덜 떨리는 손
으로 파란색 꽃 모양 스티커가 적힌 봉투를 내밀며 받아
달라고 했던 그 순간. 팀의 분위기를 흐린다고며 혼이 나고 있던 중,
자신의 연습 시간을 빼앗아 놓고 저들끼리 키득대던 다른 아이들을 발
견했을 때 찾김에 그럼 수영 그만 할게요. 하고 선언하고 나오던 길이었다.
물은 평온했으나, 제게 쏘리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남들의 비위를 맞춰 가
면서까지 하고 싶은 진로는 아니었다. 뭘 하던지 평균 이상은 했으니 이
제 와서 다른 길을 택한다고 너무 늦지는 않을 터였다. 당장 공부만
해도 성적표로 봐서는 운동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
였으니. 정안은 불결한 것을 털어내기라도 하듯 몸을 평소보다
꼼꼼히 씻고 나와 옷을 갈아입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모든
순간에 제 눈치를 보는 발걸음이 뒤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오늘이 지나면
볼 일 없을, 얼굴도 알아보지 못 하는, 저 기척만이 특징
적인 사람의 것이었으므로. 그러니 편지를 받은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뻔한 수
준이겠다.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전속
력으로 달려 도망치던 뒷모습이 새로운 종류의 충격을
주었다. 수영장에 있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 집에 돌아
와 편지를 뜯었을 때, 편지지에서는 수영장의 향기가
났다. 자신을 소개조차 하지 않은 그 편지에는 원래 편지
지에 향수를 뿌려야 한다고 배웠다, 편지지가 네 취향에 맞
지 않으면 어떡하지 고민이다 따위의 시시콜콜한 내용과, 수
영하는 게 정말 멋졌다, 너를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
각했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감동을 받았을 내용이 적혀 있었다.
셀렘이 가득 담긴 편지의 마지막에 적힌 글씨는 힘이 잔뜩 들어가 꺾꺾 놀
려 쓰여 있었다. P.S. 괜찮다면 내일은 나한테도 수영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냥 중요해.”

꽤 감동적인 내용이었나 봐요, 하고 히죽거리는 0호를 슬슬 익숙하게 무시했다.

“넌 수영도 못 한다면서. 이런 곳에서 웃기도 다 하고, 비위도 좋다.”

“기분 좋으면 웃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화내기도 하는 거죠, 뭐.”

0호도 이제는 익숙하게 정안의 핀잔에 맞섰다. 앞으로 한참을 이렇게 지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 어쩐지 조금, 아니, 많이 피곤해지는 것도 같았다. 거점에 도착해 불을 피우고 그 앞에 앉아 젖은 옷을 말렸다. 따듯하다며 너무 가까이 붙어 앉으려는 0호를 떨어뜨리고 나니, 아무리 편지의 주인을 스스로 찾기가 힘들다 해도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을지 의심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 수밖에 없었다.

...

“아, 제발요. 네?”

0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콘크리트를 타고 울렸다.

“어제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

그리고 시끄러워, 텃불인 정안이 단호히 대답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할게요. 한 번만 봐 주세요.”

네? 선배님, 하며 달라붙어 오는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었다.

사람을 가까이에서 대해 본 적이 없으니 이런 경우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0호의 주장은 슬슬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동하기 위해서는 제가 수영을 배우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정안은 그 대신 차라리 배나 뗏목 대신 쓸 만한 걸 찾아 자신이 수영을 해 끌어주는 게 나를 거라는 이야기를 세 번째 하고 있었다. 수영을 배운다고 바로 능숙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저 혼자 할 때만큼의 속도와 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년은 배워야 할 것이라고 웅은 소리를 하는 것은 덤이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수영을 가르쳐 달라는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어제 잠시 물가로 나갔던 것이 화근이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자 지레 겁을 먹어 제대로 된 사고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결국 물만 잔뜩 튀긴 채 수영의 ‘수’자도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아이,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만약에 보트에서 빠져도 제가 스스로 올라가기도 하고 하죠.”

“말이나 못 하면.”

“헤헤.”

며칠 같이 지내 본 결과, 정안은 자신이 생각보다 살가운 사람에게 약한 쪽이었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생전 안 해 본 고민을 다 하게 된 데에는 0호의 과실이 백 퍼센트겠다. 처음에야 매정하게 안 된다고 하지, 포기라는 걸 모르고 두 번, 세 번씩 계속 달라붙으면 예뻐서가 아닌,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라도 결국 원하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보 같고 저돌적인 면이 어쩐지 지치지 않는 강아지 같기도 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점은 야생의 포식자와 비슷하려나. 둘이 한 사람에 들어 있으니 이래서 늑대가 개의 조상인 걸까... ..내가 이런 멍청한 생각을 했다고? 며칠 같이 지냈다고 물든 게 틀림없다.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가게 집 챙겨.”

“앵, 벌써요? 오늘은 쉬다고 하셨잖아요.”

0호의 멍한 목소리에 짜증이 끓어오르는 것을 한 번 참았다.

“나가자며, 네가.”

“어디를요? 저 오늘은 산호인간 보기 싫은데.”

이쯤 되니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로 이렇게 멍청한 애한테 휘둘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수영 배운다며, 수영!”

결국 정안의 고향에 0호의 신난 발걸음이 뒤따랐다. 아직 하루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건만, 벌써부터 피로가 몰려오는 기분이었다. 이쯤 되니 어떻게든 저 망아지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말리라는 집념이 생겼다.

발을 물에 천천히 담갔다. 오

랜만에 밧줄을 달지 않은

발목이었다. 허리까지 물에

담근 채로 이제는 눈을 감고

도 할 수 있는 발차기를 수

면 아래에서 시작한다.

초심자에게는 동등

떠 있는 정도도

힘들 테니

너무 깊은

물로 갈

수는 없

으므로

은 바

었
정안은 앞
닥에
자

리한	산
호초들 이 자신을	향해 손 을
뻗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 다.
하얗게 센 돌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
도 아닌 것	들.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	더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들.	자신을 봐
달라고, 잡아 달라고, 꺼내 달라고	소리치
는 것 같기도 한 백색의 유품들은	안타깝
다거나 서글픈 종류의	감정
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정안
에게는 부드러	운
슬픔 대신 강인	한

책임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발만 담근 0호가 물이 차
 갑다며 호들갑을 떨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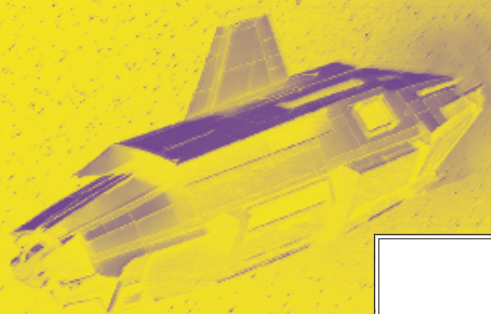
한심하
 다는 듯이
 바라보는

있나, 이렇게
 진 바다가 말
 나무
 은
 따라해 보라며
 순간 발길질하는
 든 색
 의 빛깔
 그러나
 기로 했다.
 편지봉투의

것도
 이제는
 익숙할 것
 그럼 물이
 죽음으로 가득한
 이다. 입 밖
 라지는 않은
 손을 뻗어 건물의 벽을 짚
 하나, 돌씩 발을 움직였다.
 사이로 비친 산
 깔을 빼앗긴 흰색이 아닌, 다채로
 을 품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
 정안은 그것을 무시하
 특히 그 푸른빛을,
 잉크와 그를 봉한

이다.
 따뜻할 리가
 만들어
 으로
 채 정안
 었다.
 일
 호가 모
 운 열대
 다.

스티커와 같은 빛깔을 하고 있는 푸른색을 눈을 깜빡여 털어냈다. 지금 당
 장은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눈앞에 놓여 있었으므로. “야, 똑바로 안 해?”



망 향

읽지 않은 메시지 - 1건

발신자 - ????

수신일 - ??? ? ? ?

제목 - ????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

다들 믿는다고 할 때 넌 아니라고 했잖아.

이름 하나로 신이 될 수 있었던 세계가 결국

고장 나 버렸고 우리만 그걸 안다면 거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다는 뜻일 거야.

슬퍼하지 마. 고향은 거기가 아닌 걸.

계속 생각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메시지에 답장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씨발, 날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육설을 내뱉으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흐릿해졌던 감각이 점점 돌아오며 손끝에서 진동이 울리는 것이 느껴졌다. 벽을 짚고 바닥에 발이 닿게 섰다. 이 공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심리적으로 주는 안정감이라는 것은 있기 마련이라. 물론 지금은 그마저도 소용이 없기는 했다.

분노와 혼란 따위로 인해 거칠게 내뱉는 숨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시끄러운 소리에 깨고 보니 함선이 어질러져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 있어야 할 캡슐은 서리가 끼어 있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보관함이 열려 온 사방에 물건이 떠다니고, 한마디로 개판이었다. 자동 조종 모드에 오류가 있었던 건지, 시스템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한 건지 함선의 뒷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걸 보니 무언가와 부딪힌 모양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찢어진 부분은 없다고 해야 할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운향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나만 빼고 다 뒤흔들었다 이젠가. 뭐 이딴 상황이 다 있지?

만들어낸 신을 믿던 자들의 실패한 인류 보완 계획, 그로 인한 지구의 붕괴. 옵션 B의 탈출 계획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순전히 운이었다. 아니, 아니지……. 행운 같은 허울 좋은 말이 아니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선뜻 내어 준 것을 옳다거나 흠친 것이겠지. 그 때를 생각하면 제 처지는 절박함에 성당의 촛대를 흠뻑다가 은식기까지 전부 받은 어느 빵 도둑과 다를 바 없었다.

시끄럽게 울리는 사이렌을 끄고 난 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좁은 캡슐 중 한 체는 벽과 함께 찌그러져 있었고, 나머지 다섯에는 서리가 끼어 있었다. 생체 신호의 패널에는 이름과 0이라는 숫자만이 떠 있는 것으로 보아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타고 있었던 함선에 남아 있는 생존자는 적박에 없는 모양이었다. 아는 거라곤 쥐새끼마냥 머리를 굴리는 재주뿐이나 혼자 남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농간인가?

그러게 ‘신’에게 밭보일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 상황이라도 파악해 보고자 메인 조종실로 향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영상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 원래 내 자리에 댄어야 할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잘 보이고 싶었던 건지, 정말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분석 불가능한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자 했으니 이용 가능한 사람에 제한을 걸어두지 않았다는 점을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아아, 목을 가다듬고 간단하게 명령어를 입 밖으로 냈다.

“판도라? 탐사 일지 검색.”

“탐사 일지 검색… 총 21건 있습니다. 목록을 열람하시겠습니까?”

차가운 여성형의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감정이 실린 인공지능보다는 이 편이 차라리 나았다. 그래서 안일하게 답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많이도 기록했다. 어느 놈이지? 처음부터 보여 줘.”

무슨 기록을 찾게 될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내 실책이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어?”

#001

기록 일시: 2143-08-14 10:00:00

등록인: 연우

시스템에 등록된 ‘내’ 자리의 이름은 연우. 그러니 분명 이진 내가 기록 했어야 했다는 말인데. 그러나 저 날짜, 저 시간에는 일지가 존재할 수가 없었다. 아니, 존재해서는 안 됐다. 기록 일시도, 등록인도 전부 시스템의 오류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으나, 어쨌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열어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이것은, 그래. 직감이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으로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직감. 그리고 안타깝게도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여기서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으니 나에게 주어진 것을 직면하는 것 외의 선택지 역시 없었다.

“…판도라, 1번 일지를 재생해 줘.”

존재할
 수 없는 일지
 라고 하는 이유가 있
 었다. 선내 시스템에 등록된
 탐사 일지 기능은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난 이후, 동면에 들어가기 전후로
 상황을 기록하거나 연구를 보고하는 용도로 사
 용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첫 번째 일지에 적혀
 있는 날짜와 시간은 이 함선이 출발한 정확한 시각이었
 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영상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함선 안, 조종실에 단단하게 안전벨트로 묶여 중력 가속도에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 단 하나
 도 없었을 것이다. 대체 어떤 기록이 들어 있는 건지 열어 보기가 두
 려웠으나, 함선의 인공지능은 착실히 내 명령을 수행했다. 영상 속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았으나, 그게 더 기이함을 불러일으켰다. 기억대로
 우주선의 엔진을 점화해 대기권으로 쏘아 올려지던 시간이 맞았다. 영상은
 그 순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이 거리에서 찍을 수 있을 것이
 었다면 관제탑을 통해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뿐 아니라 선체 자체의 엔진이
 내는 굉음, 지지대가 흔들리며 해제될 때의 금속을 따위가 들리기 마련이
 었으므로 나는 영상이 무음 모드로 설정된 것은 아닌지 한참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했다. 영상에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기이함은 사
 라지지 않았다. 아니, 강화되었다는 것이 맞겠다. 어떻게 소리가 들리지 않
 는 영상을 이 거리에서 찍었고, 어떻게 외부에서 찍은 영상을 이 시간에 함

선 안의 데이터로 전
송했을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영상 속
우주선이 지면에서 떠올라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이

때 함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더라. 다들 각자 자리에 고정되어 안전
벨트를 생명줄보다 단단히 잡고
있었다는 것은 두말 할 것
없는 사실이었다. 엄청
난 먼지와 함께 우주
선이 모형보다 크
기가 작아지자
계속해서 소
리가 없던
영상에 처
음으로
잡음이
잡혔다.
속삭
이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어느 순간 똑
끊겼다. 그리고 녹음되어
있던 마지막 말 한 마디에 나는
온 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모를 수 없는 목소리. “안녕.” 연우였다.

연우는 나와 시작부터 함께 있었다. 연우의 시작에 내가 있었고, 나의 시작에 연우가 있었다. 우리는 대외적으로 ‘이코르 프로젝트’로 알려진 실험의 결과물이었다.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지구는 점점 자원이 고갈되어 갔고, 사람들은 결국 신에게로 다시 그 눈을 돌렸다.

우리의 염원을 이루어 줄 신을 만들자.

그 미친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수많은 임신부들과 갓난아이가 실험장으로 향했다. 개중에는 돈이 없어 실험 참가비를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고, 실험 성공의 대상이 되면 역전할 수 있을 인생을 노리고 온 사람도, 새로운 신앙에 이미 심취해 있는 광신도까지도 섞여 있었다. 사람에게 임상실험을 했다는 것을 사회 밖으로 표출하면 아무리 부족하대도 못매를 맞을 것이 뻔했으므로 아주 오랜 시간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언젠가 잠 안 오던 밤 몰래 숨어들어가 연구원의 개인 컴퓨터를 통해 봤던 영화에서나 나오던, 혈청을 맞고 각성한 영웅. 그들은 그런 것을 만들고자 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더 이상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배아가 자라나는 과정을 아주 밀착하게 관찰하고, 갓난아이가 성장하는 것 역시 하나의 데이터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자원했던 사람들이 전부 쫓겨나고, 지적 능력을 드러내는 아이들이 전부 시설로 보내지고 난 뒤 연구소에는 수많은 유리관이 들어섰다. 자라나는 배아에게 괴상한 화학물을 주입하는 것뿐 아닌, 아예 성장하고 있는 유리관 안을 이것저것 배합한 화학 약품으로 꽉 채워 둔 채였다. 인간의 몸으로 신을 창조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은 한참을 이어졌고, 실험관 속에서 나온 아이들은 1세대, 2세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나와 연우는 4세대의 산물이었다. 윗세대라고 해봤자 겨우 일이년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아이들이었으나, 같은 세대끼리의 유대감은 상상 이상이였다. 마치 한 세대가 하나의 거대한 쌍둥이와도 같았고, ‘암브로시아’라 불리던 우리들은 전부 가족이었다. 적어도 연구소 안에서는 그러했다.

“두 번째 기록을 열람하시겠습니까?”

판도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과거의 상념으로부터 나를 깨웠다. 아직 확인해야 할 기록은 스무 건이나 남았던가. 무엇이 함선에 부딪혔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의 위협이 없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자세를 고쳐 앉고 벨트를 땀다.

“...그래, 정보를 보여 줘.”

화면에 정갈한 글자가 떠올랐다. 어쨌든 그럴 것 같더라니.

#002

기록 일시: 2143-08-16 15:31:10

등록인: 연우

다른 사람들은 이 기록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 반쯤 확신했다. 그야 다들 같이 동면에 들어갔었고, 중간에 나와 기록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캡슐이 전부 얼어붙거나 파손되어 있던 것을 확인한 이상 희망을 찾기는 어려워 보였기에. 함께 훈련을 받은 여섯 명끼리는 유대감이 끈끈했을지도 모르겠으나, 마지막에 프로젝트에 탑승한 나로서는 어떠한 큰 슬픔을 느끼기에는 어려웠다. 그래도 나를 각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정도의 유감을 표하는 것이 내가 그들을 향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정이었다. 지금 나에게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바깥 세계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보다 내가 우주 미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급한 문제였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연우’가 작성한 기록을 또 보고 싶었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연우는 나에게 있어 애정의 존재이자, 증오의 존재이기도 하고, 감사해야 할 존재지만 배신감을 느껴도 되는 존재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관계의 근본은 분명 동질감에 있으리라고 감히 추측했던 것이 연우였다.

“비슷한 내용을 필터링하시겠습니까?”

판도라가 다시 물었다. 이런 기능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잠시 고민하던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비슷한 내용이 총 몇 건이지?”

많아야 두세 건 정도 되려나. 비슷한 내용끼리 여러 묶음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동면에서 일어나 기록을 남겼을 수도 있겠다. 나라면 우주선이 발사되는 기록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전부 깨워 이게 무슨 일인지 회의를 했을 것 같지만. 아, 혹시 ‘내’ 이름으로 올라와 있어서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끼리 회의를 했으려나. 위험하다 판단했다면 내 캡슐에 무슨 짓을 해 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야속하게도 나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죽었으니 이게 운명의 장난이나 다름없었다.

“총 19건으로 확인됩니다.”

“21건 중 19건이 유사한 내용이라고?”

얕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나는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허리를 고정한 벨트 때문에 그저 텅그럭거리고 만 정도였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여기서 있다고 대답하는 게 나은 것일지, 없다고 대답하는 게 나은 것일지 알 수가 없었다.

“각 영상을 스캔한 결과, 99 퍼센트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99 퍼센트라…….”

그럼 적어도 그 19건이 전부 다 ‘연우’의 기록이라는 게 된다. 아니면 죽은 여섯 명 중 영상 기록을 켜 놓기만 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무중력 상태를 즐기만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머리카락이 흩날리면 99까지 찌기는 힘들 테니 역시 그 대머리 식물학자일까. 시뮬레이션 생각을 하던 나는 결국 찝찝함을 이기지 못하고 물었다.

“판도라, 21건의 기록의 작성자 목록을 알려주겠어?”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실제로는 몇 초 지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총 21건, 전부 연우 님의 기록입니다.”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니…….”

탄식이 절로 새어나왔다. 마른세수를 한 번 하고 다시금 입을 열었다.

“좋아. 비슷한 기록을 필터링한 뒤 나에게 영상을 전부 겹쳐서 한 번에 보여줘. 99 퍼센트라면 겹쳐서 봐도 딱히 문제는 없겠지.”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 창이 정확히 열아홉 개가 겹쳐 뜨더니, 동시에 재생을 시작했다. 이번에도 그 어떤 영상에서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영상은 전부 동면 캡슐을 비추는 구도에서 찍혀 있었다. 그곳에도 첫 번째 기록과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찍은 건지 궁금해 해야 하는 걸까. 영상은 전부 움직이지 않는 동면 캡슐 일곱 개를 비추다 끝이 났다.

그리고 보니 연우는 늘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연구소에 있던 시절에도 함께 밀접한 곳에서 생활하던 연구원들이나, 가끔 들러 얼굴을 비추고 아이들을 과자 따위로 현혹시키고는 했던 고위 인사들뿐 아니라 같이 지내고 있던 아이들까지 전부. 넌 매일 똑같은 걸 봐도 안 질려? 물었을 때, 연우는 내가 본 웃음 중 가장 따뜻하고 안심되는 웃음을 지으며 전혀. 하고 답했다. 그리고 나는 바보같이 매번 그 대답에 웃었더랬지.

언젠가 한 번 물은 적이 있었다. 나는 관찰 안 해? 그러면 연우는 답했다. 응, 너는 나랑 같잖아. 그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연구원의 실수로 같은 시험관 안에 생겼던 두 명의 아기가 나와 연우였다는 사실만을 머릿속에 잘 새겨둔 채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했다. 사실 나는 관찰하는 것보다는 함께 뛰어노는 편이 더 좋았다. 그럼에도 연우가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만큼은 함께했던 것 같다. 내가 혼자 우주로 나와 버린 지금, ‘너’도 혼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까? 연우는 늘 알 수가 없었다.

“마지막 기록을 열람하시겠습니까?”

상념에 잠겨 있다 보니 다시금 기계적인 음성이 들려온다.

“어... 어, 그래.”

마지막이라 하니 보기는 봐야겠지. 솔직히 스물 하나를 전부 보고 있을 생각도 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많이 겹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으니.

#021

기록 일시: 2145-11-23 01:24:37

등록인: 연우

등록인에 기재된 이름을 볼 때마다 흠칫 놀라게 된다. 동면에 들어간 지 2년이나 흘렀구나. 시간의 흐름이 많이 달라졌을까, 하는 사소한 궁금증이 일었다. 지구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없는 연락에 초조해하고 있을까? 아니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생각으로 없다시피 한 희망을 붙들고 있을까. 같은 목적의 다른 우주선을 또 보냈을지도 모르겠다.

“판도라, 기록을 재생해 줘.”

이번 영상은 이전의 열아홉과 장소를 같이 하고 있었으나, 무언가 달랐다. 붉은색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으나, 동면 캡슐 중 어느 것도 비상 상황을 대비한 기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화면을 보니 이미 나의 캡슐을 제외한 다른 동면 캡슐들이 전부 이상하리만치 희고 뿌옇게 얼어붙어 있는 상태였다. 오작동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영상 속에서 사이렌이 울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일으킨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때였다.

벽면을 타고 새하얀 팔이 한 쌍 투과해 들어왔다.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광경이었다. 마치 빛으로 된 것 같은 인간의 그 팔은 캡슐 중 하나를 감싸더니, 그대로 껴안아 으스스르르렸다. 아마 지금 찌그러진 캡슐이 이것이겠지. 그런데 누가? 왜, 어떻게? 화면 속의 붉은 경광등을 보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연구소를 관찰하던 연우는 어느 날 모든 것을 먹었다. 정확히는 ‘흡수’했다. 연구원도, 관리직도, 심지어는 우리 세대와 그 윗세대, 또 배양되고 있던 시험관 속의 다음 세대들까지 전부 다. 평범한 인간의 성장 속도보다 한참 빨리 자라던 우리를 징그러워하지 않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연구원도, 괴물이나 벌레를 보듯 했던 연구원도. 환심을 사려고 노력이라도 하던 관리직도, 우리와는 말 한 마디 섞지 않고 상품 보듯 했던 관리직도. 친했던 아이도, 친해질 기회가 비교적 적었던 아이도.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집어삼켰다. 나만 빼고. 그때의 대화는 아직도 뇌리 깊숙이 박혀 빠지지 않는 가장 아픈 부분이 되었다.

“여, 연우야.”

“응. 불렀어?”

“이거, 정말 네가 한 거야?”

“맞아, 내가 했어. 이제 때가 되었잖아.”

“때? 그게 뭔데. 내일 수학 공부를 도와주기로 했던 선생님도 있었어. 시험관 속의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겠다는 애도 있었어. 다, 다… 전부 먹어버려야 했어?”

“어쩔 수 없었어. 우리와는 맞지 않았는걸.”

“우리라고 하지 마…….”

뒷걸음질 치던 내 모습에도 연우는 그저 웃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던 따뜻한 그 미소로 연우는 정말이지 안타깝다는 듯한 목소리를 했다.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곧 알게 될 거야. 너는 나랑 같잖아, 그렇지.”

연우는 그 길로 연구소를 무너뜨렸다. 모든 집기를, 사람을, 약품을 한 사람의 몸이 받기에 과함을 한참 넘어선 정도로 양껏 포식하고는 그대로 세상으로 나갔다. 신을 만들고자 한 일을 모르던 사람들은 작은 여자아가 할 수 있는 일을 보고 처음에는 두려워했고, 그 뒤에는 열광했고, 마지막으로 숭배했다. 연우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신’이 되었다.

나는 세상을 저주했다. 이런 세상이 되도록 방치한 아주 먼 선대부터의 사람들을, 허무맹랑한 뜻을 품었던 초기 설립자들을, 눈앞에 보이는 힘에 홀려 무엇인지도 모르고 규격 외의 존재를 신이라 칭송하는 대중들을 전부 미워하고 저주했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내가 아는 하늘은 연구소 천장의 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요, 내가 아는 땅은 시멘트, 콘크리트, 타일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었다. 원래부터 같은 지구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으니 미워하기도 쉬웠다.

그러나 연우는 그 존재들에 속하지 않았다. 잠에 들지 못하던 밤이면 해 주던 먼 우주의 이야기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저 철로 된 천장과, 콘크리트로 된 벽과, 타일로 된 바닥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해 무한한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누구보다 즐겁게 들었다. 같은 하늘과 땅을 공유하던 존재가 좁은 세상을 부수었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니 그저 도망치기를 택했을 뿐이다. 모든 것은 증오 또는 도망, 두 가지로 해결하게 되었다. 연우, 나와 같은 존재. 나의 이해자. 한때 되고 싶었던….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 정점에서 모두를 내려다 보던 세계가, 우리가 언젠가 ‘완전한 성공작’이 되었더라면 ‘구해야 했을’ 세계가 멸망하고 있음을 깨닫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자원은 고갈되었고, 온갖 재해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아치고 있었다. 숨을 쉬기만 해도 입안에서 모래가 씹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물이 흘러넘쳐 집과 숲이 사라지고는 했다. 인간이라는 종은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다면 자신을 계승하는 존재가 있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플랜 B, 이 함선이었다.

냉동된 수천, 수만, 수억의 배아를 가지고 새로운 ‘지구’를 찾아 자리를 잡고 문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그들에게 ‘가호’를 내려 줘야 하는 연우의 자리는 당연히 있었다. 그리고 지구를 떠나고 싶었던 나는 그것을 갈취했다. 어차피 보통의 사람들은 ‘나’도, ‘연우’도 모르고, 둘 다 분석 불가능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속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연우가 마음만 먹었더라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은 나의 절도를 용인했다는 것일까.

그 순간, 영상 속에서 울리고 있던 붉은 빛이 다시금 선체를 채웠다.

“미확인 물체, 선체로 접근 중. 선외 카메라를 켜시겠습니까?”

판도라의 차분한 목소리에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천천히 떠오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각 화면을 분할해서 보여줘.”

“알겠습니다.”

접근 중이라는 물체를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었다.

“판도라, 물체가 접근 중인 방향으로 카메라를 틀어 줘.”

“센서 확인 중…….”

판도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툭툭, 하고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함선의 창을 두드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우주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한 거지? 과학적인 근거를 따지고 들자니 나의 탄생 역시도 완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전부 의미 없는 추론일 뿐이다. 툭툭,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동시에 아까까지 보고 있던 스크린에서 알람이 울리는 소리가 났다.

“판도라, 방금 그건 뭐야?”

“미확인 메시지입니다. 발신 시간 불명. 발신자 불명. 수신자 불명.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미확인 메시지라니. 누가 보낸 것인지 알 것만 같았다. 어쨌든 그 내용까지도. 절도를 용인해 준 것이 아니라, 같이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네가 나를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 함선에 타게 함으로 서로에게 서로를 용서할 기회를 준 셈이다. 나는 친구들, 가족들과 지구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교환한 것이고, 너는 억울함을 새로운 출발로 교환한 것이겠구나.

“원하신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니, 괜찮아. 내가 직접 확인할게.”

창문 너머에는 예상했던 대로 연우가 있었다.
나보다 한 마디 작은 키로, 내가 좋아했던
그 웃음을 지으며, 우주복 하나 입지 않
고 무중력에 몸을 맡긴 채로 창 너머
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
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 넓은 곳
에서 이 작은 함선은 어떻게
찾았는지, 나를 보내준 것
역시 어떤 큰 계획의 일부
였는지. 묻고 싶은 게 산
더미였다. 입을 뻐끔
거리는 모양새를 보니
연우도 마찬가지인 듯 했다.
모든 영상 기록에서처럼 소리는 들리
지 않았지만, 나는 연우가 나에게 하고 싶
어 하는 말을 알았
다. “같이 가
자.” 나에게 계속해
서 말하고
자 하는 문장은 그
것이였다.
소리 없이도 눈빛으로, 입모양으로,
무엇보다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언젠가
연우가
나에게 해 준 말이 있었다. “우리가
여기
서 적응하지 못하는 건,
우리
가 이 별의 사람이 아
니
기 때문이야.”
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 보았기에 더 흥미를 가졌던
것도 같다. “그럼 네 고향 별은 어디인데?” “아주, 아
주 먼 곳에 있겠지.” “내 고향은 어디일까.” “나랑 같
은 곳.” “정말?” “정말.” 확신을 가진 연우의 목소리가
좋았다. 목적성이 뚜렷하나 방법이 확실하지 않은 장소에서
유일하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다른 사람
들의 눈에 띄지 않은 채로도,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아 연우가 나에게 나는 자신과 같다고

말 해 주던 모든 순간이 진심으로 좋았다. 그

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연우를 증오 하면서도

사랑하고,

원망하면서도

아끼는 것일 테

다. 선내 생활복의

장갑을 벗었다. 우주

공간 속을 유영하는 연

우의 맨손과 꼭 같은 모양

새를 하도록. 선내의 위험 감

지 알림이 울렸다. “원인 미상의

중력 이상으로 자동 조종 모드가 해

제됩니다.” 두꺼운 유리창으로 천천히

손을 뻗었다. 연우가 웃으며 마찬가지로

나에게로 손을 내밀었다. 창을 사이에 두고도

들렸다. “집에 가자.” 그리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A vibrant, swirling nebula in space, featuring a mix of blue, green, yellow, and red colors. A bright, glowing core is visible in the center of the swirl. In the upper left corner, a red planet with a bright, glowing center is visible against the dark background of space, which is filled with numerous small stars.

작
가
의
말

작가의 말

예전부터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과목 이름만을 보고 무작정 탐내던 수업을 지금이 아니면 듣지 못할 것 같아 수강하게 되어 결국 어떻게든... 책 한 권을 완성하게 되었네요.

주위 사람들이 삼재냐며 농담을 할 정도로 올해들어 이상하리만치 나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책을 작업하면서도 마찬가지로였던 것 같아요. 원고 파일과 내지편집 파일을 한 번씩 날리는 경험은 인생에서 두 번 하고 싶은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련의 사건 탓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많은 사건사고가 겹쳐 원고에 완전한 100%를 쏟을 수 없었기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전개가 갑작스럽거나 뜬금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보여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한 편 한 편 다 장편으로 풀어내 써야 할 정도의 줄거리를 가지고 시작했 던지라 마음이 더 아픈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언젠가 원고를 더 다듬어서 정식으로 출판사 등록도 하고, ISBN도 발급받은 뒤에 정식 책으로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주인공에게 핵심이 되는 가치를 하나씩 부여해 줄 것, 동행인 또는 중요 인물을 하나씩 부여해 줄 정도가 제가 지키려고 노력했던 항목입니다. 굳이 세계가 멸망하지 않아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요...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라 더 그렇게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작업할 때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인데, 많은 사건사고와 일이 굉장히 많이 겹쳤을 때는 노래 없이도 어떻게든 써지더군요.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래도 다음부터는 구상한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고 꼼꼼하게 작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위해 플레이리스트까지 엄선했는데 따로 만들었는데, 한 번에 제대로 한 바퀴를 돈 적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이 자리를 빌어 이름을 빌려 준 저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인물들의 캐릭터성과 이야기의 전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는데, 제가 작명을 하자니 짧은 시간 내에 구상을 해야 하다 보니 어쩐지 인물에게 정이 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주변 사람들의 이름 빌리기였습니다.

가장 먼저 허락해 준 시인과 세희, 선뜻 내어 준 정안과 서현과 연우, 선택지가 좋아졌음에도 이름을 빌려준 승연과 우주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각자 허락을 받고 원하는 색깔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배정했는데, 인물이나 전개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어쩌나 살짝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미 짜여진 곳에 이름만을 얹은 것이니 혹여나 이름을 이상한 데 썼다고 생각한다면 노여움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책을 쓰고 편집하는 데에 있어 많은 응원과 도움을 주신 무기명의 많은 친구들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끄럽게도 설레발을 쳐 벌려 놓는 일의 크기에 비해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좋은지 계산하는 데에 아직 미숙해 하마터면 아예 완성조차 못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뻔 했는데, 이 분들 덕분에 그래도 책이 어떻게 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매주 아침 작업을 함께 해 준 민지 양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책은 그 자체로도 완성이 되지만, 제 책은 빈말로도 좋은 책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감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계셔서 완성될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다른 책으로, 혹은 색채의 종말을 더 발전시켜 또 다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색채의 종말

©진하연

초판 1쇄 2024년 12월 18일

지은이 진하연

펴낸이 진하연

펴낸곳 흐르는물

편집 진하연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제1캠퍼스 순헌관 211호

이메일 jinhy0916@sookmyung.ac.kr

가격 11,900원

이 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ISBN 000-00-000000-0-0

일곱 개의 색깔, 일곱 개의 멸망 그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들

사람은 낭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법이니까요.

『색채의 종말』 감정사 中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정해진 장소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세계에서 내면의 색채에 집중해 본다.

각자 다른 답을 찾고 자신을 탐구하며 주어진 길 위를 걸어가는 일곱 명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이 멸망한 뒤에도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거리를 제공한다.

책을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호기심 많은 사람이 그려내는 세상은 정말 다채롭고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는 SF를 두고 과학보다 공상에 가깝지 않느냐고 하곤 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과거에는 공상에 가까웠을 텐데도 말이다. 나는 실현 가능성의 여부를 따지기보다, 새로이 옛본 세상에 한 번쯤 들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포칼립스를 겪고 싶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지금의 내가 아닌 나도 궁금해지곤 하니까.

—시인, 취업하고 싶은 사진학과



가격: 11,900원